



CARITAS WONJU

2012년 봄·여름 <제23호>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NONPROFIT
US POSTAGE
PAID
MERRIFIELD, VA
PERMIT 489

난방비지원 기금모금 미용이벤트 ▶14~15



4 카리타스 정기이사회



6·7 어려운 이웃 난방비 지원



8 사랑의 모금통



16·17 산타가 되어주세요



18~21 산타가 되어주셔서 감사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 571-432-9868 / 703-968-3010

이메일 : caritasva@gmail.com 홈페이지 : <http://www.caritaswonjuva.com>

글 쓰는 순서

	글 쓰는 순서	
2	고국에서 온 편지 - 타인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	최기식 신부
	카리타스란	
3	이사장 글 - 행복은 매일을 충실히 사는 것	곽호인 신부
4	후원회장 글 - 후원 중단하지 말아주세요	유홍열 회장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9차 정기이사회	
5	편집인 데스크	정영희
6·7	고국의 어려운 이웃 난방비 지원	
8	사랑의 모금통 설치 업소를 찾아서 - Skyline Cafe	차 모니카
9	한국에서의 해외송금과 세금 보고	노상문
10	광고 - 라인댄스 강습	
11	선한 사마리아인	박평일
12·13	My Polish Boyfriend	홍사원
14·15	독거노인들의 겨울나기 돕기	정영희
16·17	기빙트리에 달린 사랑과 희망	
18·21	산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2·23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24	광고 - 충주성심 야구부 1004모집	
25	원주후원회 소식	
26·27	후원회비	
28	우리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해 드립니다	
	후원금 내역 (2011년 6월 ~ 2011년 12월)	
29	사랑을 함께 나눌 회원이 되어주시겠습니까?	
30	광고	
31	광고	
32	광고 - 하상문화방송	

고국에서 온 편지

타인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

최기식 베네딕토 신부 <원주교구 사회복지사업 후원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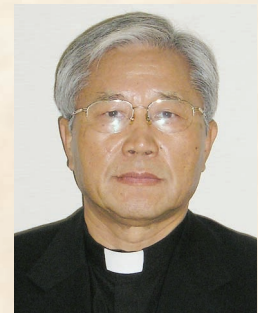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하고 새 희망으로
성탄과 새해를 기다리는 때, 큰 보람으로 마무리
하는 축복의 연말 연시가 되기를 기원하며 원주
에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회원님께서 나누어주신 따뜻한 손길,
정성된 마음이 있어 원주 교구는 사랑이신 주님
의 빛을 드러내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
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저희 신부, 수녀, 모든 직원들과 가족들이 마
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가
오는 성탄과 새해 아침이 기쁨과 희망 가득한 새
로운 축복의 날들의 시작하기를 기도하며 축하드
립니다.

구세주께서는 회원님 가슴에 빛과 생명, 사랑
으로 오십니다. 본래 찾고 갈구하는 하느님 모
습, 사랑의 충만함으로 오십니다. 사랑으로 무장
하는 맑은 마음, 영혼의 충만한 기쁨을 향해 길
을 떠나는 것이 성탄을 기다리고 새해를 맞는 의
미였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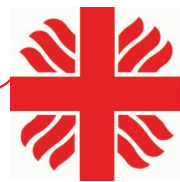
빈민의 아버지라 불리던 피에르 신부는 “진정
한 그리스도적 삶에 있어선 어떤 대가를 치루더
라도 꼭 찾아 얻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행
복’이 아닌 ‘사랑’”이라며 “인간의 삶이란 사랑
을 배우기 위해 허락된 짧은 순간”이라고 했습



니다. 참으로 사랑이 아니면 산다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타인인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짐’을 의미합니다. 타인
인 당신이 괴로우면 나도 아픈 것이 사랑입니
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기도 하고, 이웃의 고통을 내 것으
로 수용하여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함이 사랑
을 배우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나 삶의 목적
도, 반복하는 새로운 희망도, 단순한 이 진리인
‘사랑 배우기’에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
다.

회원님, 힘찬 희망의 종을 울리며 가장 소중한
섬김과 나눔의 길, 사랑 노래 부르며 또 한 해 함
께 해 주시길 기원하며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2011년 12월 최기식 신부



카리타스(Caritas)란?

라틴어로 ‘카리타스(Caritas)’라고 쓰며 사랑(愛), 애덕(愛德), 자선(慈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카
리타스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가톨릭교회의 모든 활동과 사업을 말하
기도 하며, 이러한 활동을 하는 기구나 단체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로마 바티칸 시국에 있는 국제 카리타스(Caritas Internationalis)와 전세계 198개 나라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
는 154개 카리타스는 상호협력함으로써, 특히 제 3세계 국가의 구호 및 복지,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글

행복은 매일을 충실히 사는 것

곽호인 베드로 신부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 이사장, 성 정 바오로성당 주임신부>

2012년을 맞아 신정과 구정을 지내며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만나는 여러 지인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수없이 했습니다.

새해 희망은 대부분 자신과 가족의 건강, 자녀들의 좋은 성적, 자신의 승진이나 좀 더 나아진 경제 형편 등 자신과 가족, 가정의 평안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새해 아침에 건네는 “복 많이 받으세요”는 “행복하세요”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복’ 즉 ‘행복’이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행복이란 마음 깊은 곳에서 보람과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 보다 많이 소유하고, 남 보다 앞서가는 것, 즉 물질과 명예를 위한 욕구가 충족될 때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연예인이나 정치가, 재벌등의 자살행위에서 명백히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남보다 물질적으로 많이 가졌어도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또한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은 복을 누군가가 주는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사랑을 나누기 위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며 새해인사는 하느님이 축복으로 주신 새해를 은혜롭게 살자는 뜻입니다.

행복은 또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이룬 것에 감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미국의 환경운동가 도넬라 메도스가 쓴 보고서에 근거한 통계에 따르면, 세계의 인구를 100명이 사는 지구 마을로 축소하여 가정하였을 경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1명이고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2명이라고 합니다. 몸에 걸

칠 옷이 있고, 내일 먹을 것이 있으며,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25명이며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14명, 영양 부족 상태에 있는 사람이 14명, 신선한 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17명이라고 합니다.

몸에 걸칠 옷이 있고, 내일 먹을 음식이 있고, 지붕이 있어 잘 곳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75퍼센트의 사람보다 풍요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학을 졸업했고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극히 선택받은 소수에 속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범한 것도 갖지 못하고 적정 수준 이하의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고 있으나 우리는 자꾸만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행복은 하느님이 주신 현실에 감사하며 충실히 하루하루를 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현대 신학자 칼 라너는 우리의 일상 안에 하느님의 ‘무언의 신비’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상의 사소한 일도 참으로 인간다운 삶의 본질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영원한 ‘하느님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직장

에서 일을 할 때도, 가정에서 밥을 짓고 빨래할 때도 하느님의 숨은 은총이 드러나고 우리 삶의 본질을 구현하는 시간입니다. 일상에서 싫지만 해야 하고, 피하고 싶지만 겪어야 하는 일들이 사실은 소중한 자기 봉헌 행위이며 하느님의 현존과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과거나 미래에 매달리지 않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 즉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회원 기도문

모든 이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께 봉헌되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께 대한 굳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려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사랑 닮기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작은 희생과 기도로
주님 모상이 우리와 이웃 안에
새롭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두 손 모아 간절히 청하오니
교회로 하여금 세상 안에
주님 뜻을 식별하여
죄와 온갖 고통 속에
간여있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는 사랑의
성사되게 하여 주소서.
또한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모든 이를 돌보는
성직자, 수도자와 봉사하는
모든 이의 삶이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는
당신 모습이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원주 카리타스에 함께 하시어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사랑의 작은 불꽃 모임이 되어
주님 사랑을 만방에 전하는
도구되게 도와주소서.

사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과 하나되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후원회장 글

“후원 중단하지 말아주세요”



유홍열

(원주 카리타스 후원회장)

또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도 후원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지나고 지난 해를 돌아보니 지난 한 해도 참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몇 년째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불황에 어려운 살림을 꾸려야 하는 이웃들도 많았고 저희 후원회도 후원회원의 감소와 재정규모의 축소를 겪었습니다. 미국 내 소규모의 복지재단들이 후원금 부족으로 활동을 중단하는 곳도 있다는 소식이 있는 것을 보면 사태가 무척 심각한가 봅니다.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경기회복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니 올해는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살림이 어렵다는 이야기와 함께 미국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느 때 보다도 빈곤층의 인구가 많아졌다고 하니 복지에 대한 논의도 자주 대하게 됩니다. 더우기 현재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복지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다 보니 올해 대통령선거에 나온 공화당 후보들의 복지후원액수가 뉴스가 되기도 하나 봅니다. 복지후원금을 많이 내놓았다고 좋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도움을 주시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아직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네팔이나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같은 경제가 뒤떨어진 국가의 빈곤 지역에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해 흑빛공부방을 맡고 계신 신부님께서 쓰신 글에 마침으로 “후원자 여러분 후원 중단하지 말아주세요” 하신 부탁의 말씀을 보며 그것이 복지 후원회에 관계된 모든 이의 공통된 바람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에도 후원을 계속해 주신 원주카리타스 버지니아 후원회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도 “후원 중단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제9차 정기이사회

작년 한 해 17만142 달러 복지후원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은 지난 1월30일 버지니아의 성 정 바오로 성당 회의실에서 제9차 법인 정기이사회를 갖고 2011년 재무보고와 2012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에 모금된 후원금은 총 17만2,930달러로 몇 년째 계속되는 불황 때문인지 전년에 비해 일반회비와 결연후원금이 10%정도 감소되었다. 복지후원을 위한 지출은 총 17만142달러로 고국의 50개 시설과 필리핀, 네팔, 파푸아 뉴기니 등 해외 복지시설을 위한 후원금과 일본 지진피해 구호금으로 전달되었다.

올해 사업계획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미용 이벤트, 산타 행사, 후원회지 발간, 라인댄스 강습 및 DVD제작, 녹음도서 보급, ‘사랑의 모금통’ 확산 등이 발표되었다.

복지재단의 수입 감소에 대하여 복지재단 이사장인 곽호인 신부 (성 정 바오로 성당 주임)는 “본당 차원에서도 본당의 신자 수는 늘었으나 재정규모는 몇 년째 줄고 있다”며 “불



경기로 인해 이민자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만큼 기금을 모아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금년 한 해도 작지만 어려운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편집인 데스크

아름다운 작별, 웰 다잉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나 하늘로 돌아가리라/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귀천(歸天)전문).

작별 시간 허락에 감사

지난 연말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삶과 죽음’ ‘아름다운 생의 마무리’를 생각하게 하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고 작성한 기사 ‘아름다운 작별의 시간 허락에 감사’ (위싱턴 한국일보 12월24일 미주판 1면 보도)에 대한 반응이 꽤 뜨거웠다. 필자의 첫 보도 이후 한국 언론에서도 일제히 편지를 보낸 강영우 박사의 췌장암 발병 사실과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에 대해 보도했다. 미주 지역과 한국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한 캐나다 등지에서도 이메일이 쏟아져 들어왔다. 독자들은 ‘크리스마스에 이보다 더 감동적인 뉴스는 없다’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기사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렀다’ 등의 이메일을 보냈다. 시각장애인으로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자관보를 지낸 강 박사는 가까운 친지들과 지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여러분이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길 바란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 온 제가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인사 할 시간도 허락 받아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죽음 앞에서도 밝은 미소

이에 앞서 필자는 지난 2008년 카리타스 편집인 칼럼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다. ‘마지막 강의에서 듣는 인생의 소중함’을 타이틀로 한 칼럼은 2008년 7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포쉬(Randy Pausch)교수의 스토리였다. 강 박사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앞둔 포쉬 교수는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희망, 용기를 전했다.

2007년 9월 18일에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의 ‘마지막 강의’에서 포쉬 교수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를 감동적으로 강의했다.

48세의 짧은 삶이었지만 세상에 한 줄기 빛을 선사하고 떠난 그 역시 죽음을 앞두고도 늘 긍정적이었으며 밝았다. 어린 꼬마들이 자신의 세 아이들이 30년 후 성인이 됐을 때 보라고 집필한 저서에서 그는 ‘포기하지 말 것, 감사할 것, 정직할 것’ 3가지를 강조했다.

내 몸은 목판의 엿가락, 주님 뜻대로 하소서

2012년 새해 들어 가톨릭 서울대교구 ‘서울주보’에 암 투병기를 쓰기 시작한 소설가 최인호씨. 그는 주님께서 우리를 베풀 끝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날개를 가진 거룩한 천사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내 몸은 목판의 엿가락. 엿장수인 주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고백 하며 신 앞에 무릎 꿇었다.

1987년 마흔 둘에 가톨릭 신자가 된 그는 2008년 침샘암 판정을 받았다. 병원 복도에서 머리를 깎은 어린이 암환자와 마주쳤을 때 ‘주님, 저 아이는 누구의 죄 때문에 아픈 겁니까?’라며 항의하듯 물었던 그도 신 앞에 엎드리며 순명(順命)했다.

그는 릴케의 시 ‘엄숙한 시간’을 인용하면서 “우리들이 이 순간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까닭 없이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 때문”이라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어딘가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과 주리고 목마른 사람과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통의 학교’에서 배우는 여유

지난 2008년 암 수술 후 부산 성 베네딕도 수녀회에서 지내고 있는 시인 이혜인 수녀 역시 “순간순간을 충실히 살라”고 충고한다.

자신에게 찾아온 ‘암’과 맞서 싸우면서 그는 ‘고통의 학교’를 다녀왔다고 표현했다. 이를 통해 세상을 좀 더 넓게 보는 여유, 힘든 중에도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여유,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유, 유머를 즐기는 여유, 천천히 생각할 줄 아는 여유, 사물을 건성

으로 보지 않고 의미를 발견하는 여유, 단어를 하나하나 음미하며 책을 읽는 여유를 바로 ‘고통의 학교’에서 배웠다고 했다.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들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무엇일까.

지난해 5월 출간된 일본인 의사 오츠 슈이치씨의 저서 ‘죽을 때 후회하는 것 25가지’는 1,000명이 넘는 말기 암 환자들이 죽기 전에 남긴 이야기를 정리한 것. 그 25가지는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지 않았던 것, 꿈을 실현할 수 없었던 것, 맛있는 것을 먹지 않았던 것, 마음에 남는 연애를 하지 않았던 것, 나쁜 일(악행)을 저지른 것, 감정에 좌지우지돼 일생을 보내 버린 것, 자신을 제일이라고 믿고 살아 온 것, 생애 마지막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 등이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 가고 싶은 장소를 여행하지 않았던 것, 취미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던 것,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것,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았던 것,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던 것, 죽음을 불행하다고 생각한 것, 남겨진 시간을 소중히 보내지 않았던 것, 종교를 몰랐던 것,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 등이 포함됐다.

순명(順命)의 삶과 선종(善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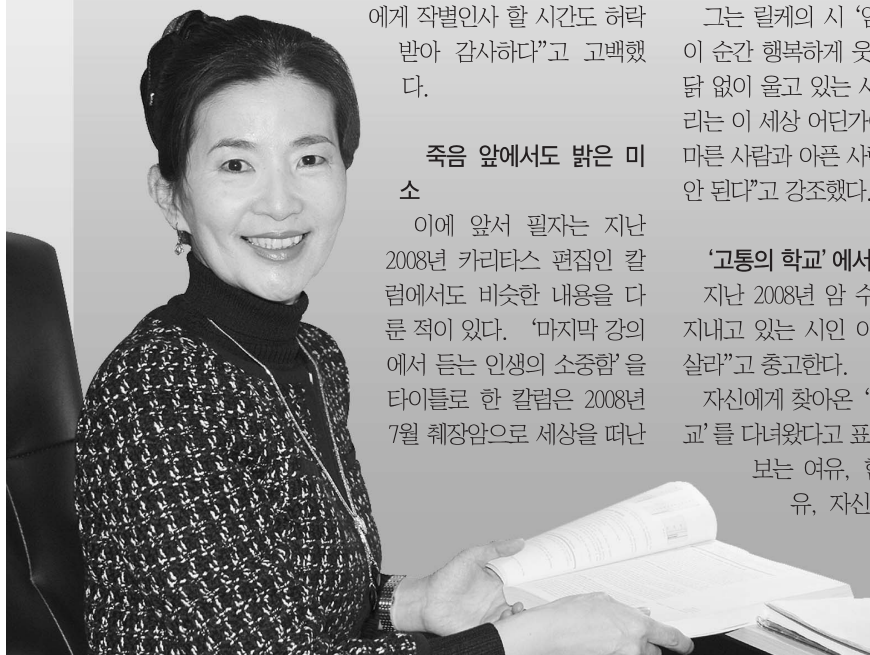
‘죽음’이라는, 인간이 어찌지 못하는 큰 산과 마주하게 되면 지금껏 해왔던 고민 등은 아주 사소한 일이 돼버린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별 일 아닌 것으로 죽기 살기 식으로 말다툼하고 싸우며 상처 준 사실을 후회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지금까지 고맙웠다.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식 없이 오랫동안 누워있다 세상을 떠나거나 작별 인사할 틈도 없이 허망하게 눈을 감는다. 건강할 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하고 싶은 말, 고마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구별을 떠나는 날, 그동안 고맙웠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평화로운 미소를 남기고 싶다. 선종(善終),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면서 세상과 사람에 대한 너그럽고 따뜻한 시선을 갖고 싶다.

강영우 박사는 지난 2월23일 별세, 아름다운 생을 마감했다.

정영희 기자

〈카리타스 편집인·위싱턴 한국일보 편집국 부장〉



고국의 어려운 이웃 난방비 지원

모금액 1만6천 달러 전달

해마다 겨울이 오면 유난히 추운 강원도 산간 지역의 독거노인가정과 조손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는 난방비가 큰 걱정거리로 다가온다. 이를 돕기 위해 매년 원주 카리타스복지재단(이사장 곽호인 신부)은 느미라지 헤어살롱의 후원을 통한 미용 이벤트 및 모금운동을 통하여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미용이벤트

수익금을 포함하여 1만6천 달러를 원주교구 사회복지 사업후원회에 송금하였고 고국에서는 이 자금으로 각 본당과 시설을 통하여 추천받은 어려운 이웃 총 105세대에 2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였다. 원주와 삼척에서 보내온 감사편지와 사진을 소개한다. 수혜자의 이름은 신원보호 차원에서 익명으로 하였다. <편집실>

안녕하세요?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지역 사회보호팀 정미정 사회복지사입니다.

매년 사각지대의 아동 및 어르신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유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소득이지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한 부모 세대 및 조손 세대, 저소득 세대 등 총 3가정에 난방유를 전달하였습니다.

한 부모 세대인 김** 학생의 가정은 어머니의 장애로 인하여 어머니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2009년도부터 수급자 명단에서 탈락되어 현재 정부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취업에 유리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며,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취직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가장 싫다는 김** 친구. 처음부터 대학진학의 꿈이 없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보다 빨리 취업을 하여 가정 경제를 돕고 싶어하는 속 깊은 친구이기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조손세대인 이**은 할머니와 함께 살며 중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항상 아침마다 라면을 먹고 학교에 가는 친구입니다.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잦은 부재. 그리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고스란히 남은 빛으로 인하여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이** 학생은 작년에는 보일러가 고장나서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보냈습니다.

올해 보일러를 고쳐서 보일러는 사용 가능하지만 기름이 없어 보일러를 돌리지 못하면 작년 처럼 또 보일러가 터지지 않을까 걱정하였지만 원주카리타스 버지니아 복지재단에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보일러 고장 걱정은 한시름 덜었다고 합니다. 이**의 할머니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소득 세대인 라**의 가정은 형제가 4명이 고, 부모가 모두 계시지만 두 분 모두의 건강상태(암, 허리 디스크 등)가 양호하지 못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먹고 살기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젊고 병명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힘든 가정입니다.

아빠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겨울이 되면 거의 일을 할 수 없고, 엄마가 아르바이트해서 버는 수입원으로 겨울을 보내기엔 빠듯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절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최근 첫째 딸이 고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년 라**의 가정에 난방유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히 사용하고 있지만 죄송한 마음이 제일 크다고 애

기해 주십니다.

원주카리타스 버지니아 복지재단의 따뜻한 손길로 인하여 위의 3가정은 조금이나마 온기를 선물받고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방비를 지원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원가정의 가족들과 후원해 주신 모든분들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고,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고국의 어려운 이웃 난방비 지원

버지니아후원회 사랑으로 따뜻한 겨울을 맞은

다섯 손가락의 행복한 STORY

안녕하세요? **삼척종합사회복지관**의 홍성의 복지사입니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쌀쌀하고, 앙상한 나뭇가지가 마음을 스산하게 합니다.

이번 원주카리타스 버지니아 복지재단의 결식아동 급식비 및 독거어르신 난방비 지원으로 대가족에 경제적 도움과 따스한 온정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김** 학생(고등학생)은 편부가정이며, 아버지가 알코올성 질환(알코올 중독)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여서 좋은 양육 여건에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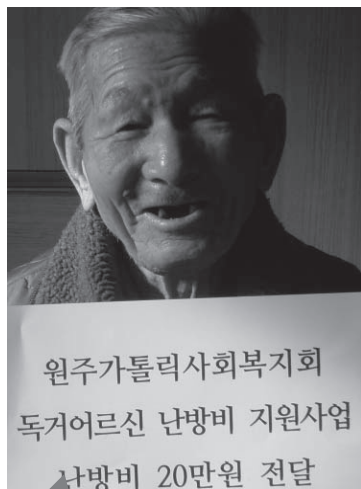
큰아버지와 고모가 보살펴 주었지만 현재는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언니의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어 경제상황도 좋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난방비 지원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은 조손가정 아동으로 할머니가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형은 현재 고등학교 졸업 후

안그래도 없는 돈에 기름 값이 아까워 장판으로만 지냈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눈물이 다 나네요. 건강하세요.
강원 횡성군 조OO(80세)



여러분들 덕분에 추운 산골마을에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강원 횡성군 안OO(77세)



허허허! 미국 저~멀리서 정말 고마워요! 혼자 사는 이 노인네의 콧잔등이 찡합니다.
강원 횡성군 진OO(88세)



머리에 난 혹 수술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난방을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원 횡성군 함OO(70세)

제 아들입니다. 항암치료를 하여 면역력이 약한 저와 어린 제 아들은 이제 걱정없이 겨울을 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여 우리 아들도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키우겠습니다.
강원 횡성군 배OO(2세)모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아서 군 입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가까이 있는 큰아버지와도 왕래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 아동의 가정도 이번 난방비 지급으로 경제적 도움과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은 독거어르신으로 자녀가 있지만 아들의 사업실패와 채무관계로 어르신 본인도 고통을 받고 있으며,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전등도 아껴서 쓰고, 난방비 부담으로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 난방비 지원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 왔습니다.

이번 난방비지원으로 인하여 세 가정 모두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지원받은 분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힘내세요! 대한민국 횡성에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버지니아 후원회 파이팅~

사랑의 모금통 설치 업소를 찾아서

티끌 모아 태산 '사랑의 모금통'

차 모니카 <카리타스 운영·재정이사>

이번 회지에는 '사랑의 모금통'의 역사와 용도를 설명 드리려 한다.

'사랑의 모금통'은 카리타스 복지재단의 전 회장이었던 김 데레사님의 아이디어의 산물이다. 목적에 맞는 통을 제일 저렴하게 선택하여 구입하는 일부터 통을 예쁘게 치장하는 일까지, 또 여러 업소가 참여하도록 홍보를 하는 일 등 모두가 그 분의 열정으로 이루어졌다.

나는 우리 집과 가까운 몇 업소의 모금통들을 수거하는 일을 돕다가 이제 담당자가 되었다. 담당자의 일이라야 별 것은 아니다. 정기적으로 모금통이 설치된 업소들을 방문하여 돈이 모아진 통을 수거하고 새 통을 설치한 후, 수거된 통의 돈을 세어 입금시키는 일이다.

몇몇 업소들은 1년에 한, 두 번 내가 방문하여 수거하는 반면 여러 교인 업소의 후원자들은 동전으로 가득 채워진 무거운 통을 성당으로 직접 일요일마다 가져오신다. 고맙게도 한 달에 1~2통씩 가지고 오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모금통을 채우는 것이 아주 습관화 되신 것 같다.

반면 모금통을 부담스러워 하며 도로 가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다. 한편 업소를 다른 분에게 넘기시면서 모금통도 새 주

인에게 부탁해 주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업소가 아닌 개인이 모금통을 집에다 가져다 놓고 잔돈 또는 지폐로 가득 채워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분도 몇 분 계신다.

이제는 예전같이 일일이 집에서 세어 동전 종이(coin roll)에 싸서 입금하지 않고 동전 세는 기계가 있는 은행에 구좌를 열어 입금시킬 수 있어 시간이 많이 절약되었다.

'사랑의 모금통'을 통해 일 년 동안 모아지는 평균 액수는 약 7~8,000 달러이다. 정말 티끌 모아 태산이다. 이것은

주로 지구촌에 재난이 발생할 때 긴급구호금으로 보내지거나 겨울철 독거노인 난방지원에 보내지기도 하는 등 명실공히 사랑나눔, 불우이웃 돕기에 요긴하게 쓰여진다.

2011년이 어느새 훌쩍 지나버렸다. 지난해의 아쉬움이 가시기도 전에 모금통 기사를 써 보내라 한다. 연말연시의 바쁜 생활 속에서 모금통들은 하나, 둘 모여 집 한 구석에서 "나 입금 시켜 주세요"라 말하고 있다.

모금통을 성당으로 못 가지고 오시는 분들의 업소들을 방문해야 하는데 하루 이틀 계속 미루고 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길에, 또는 내 시간이 날 때 들른다는 게 벌써 어떤 업소들은 방문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하다. 이러다가도 직접 업소에 들러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모금통 식구들을 만나보고 오면 즐거운 마음에 나도 이 일을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Skyline Cafe(Target 옆)
5127C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22041



한국에서의 해외송금과 세금 보고



노상문 공인회계사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한국에 이래 저래 많은 연고를 두고 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과의 금전거래도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혹은 이민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나 부동산을 처분하고 나서 미국으로 송금

로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면 한국에서 송금받는 경우에는 어떠할까? 무엇보다도 송금받은 자금의 성격에 따라 세법이 달리 적용된다. 즉 송금받은 돈이 자기 자신의 돈인지 아니면 증여성 송금인지에 대한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민 오기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이나 은행 등에 예치해 두었던 자신 명의의 돈을 미국으로 송금해 오는 경우에 별도로 세무당국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다만 미국 세법상 영주권자를 포함한 거주자는 미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 처분시 생기는 양

한편 한국의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증여성 송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간 총액이 100,000불이 넘으면 반드시 연방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 중에 학비보조나 병원 치료비 등을 위해 송금받았다면 이 금액은 예외로 적용된다. 그리고 개인이 아닌 회사나 신탁으로부터 연간 10,931불 이상을 송금받으면 마찬가지로 세무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 보고시 양식 3520을 통하여 송금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4월 15일 까지 제출해야 한다. 미국 세법상 증여세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인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고 다만 보고할 의무만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소: 7023 Little River Turnpike #202,
Annandale, VA 22003

▶문의: 703-533-7200

자신의 돈 송금해 오는 경우 별도 보고 필요없으나 관련서류 잘 챙겨야

연간 100,000불 이상 증여성 송금은 양식 3520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해 오기도 한다.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의 부모님이나 친지에게 돈을 보내기도 한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낼 때 발생하는 세금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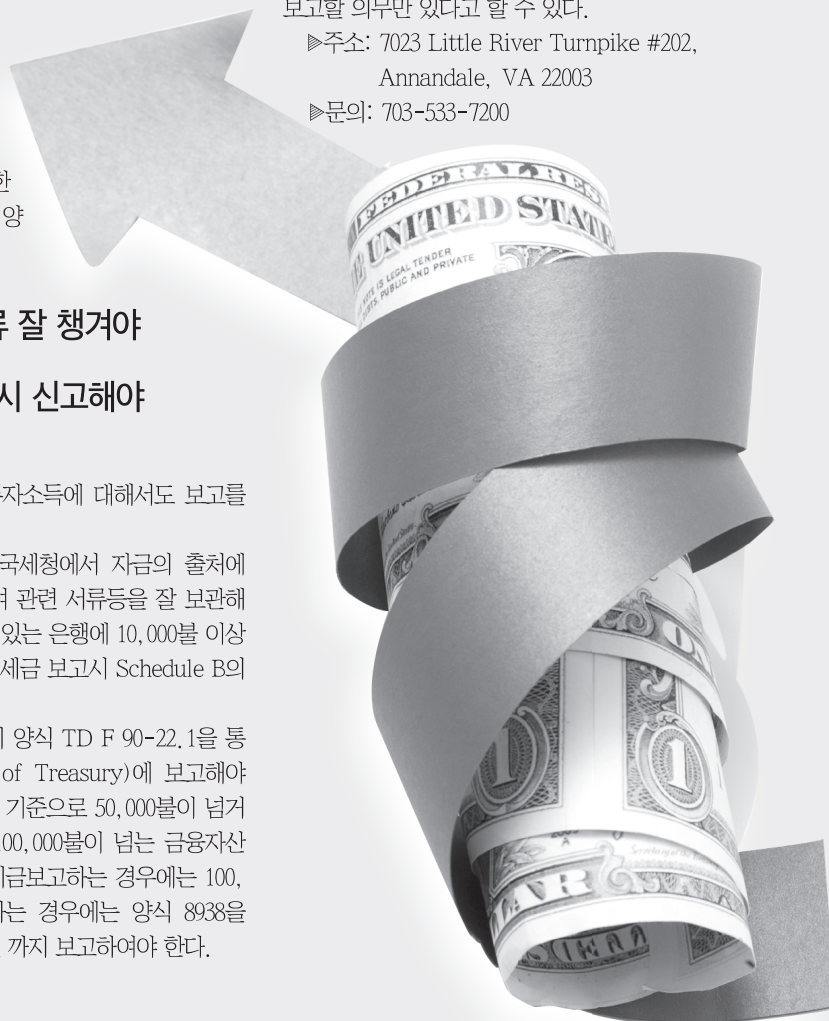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한미간에는 조세협정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내면 다른 국가에서는 세금을 면제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한미간의 세무협정에 따라 양국간의 금전거래는 일단 해당 국가의 세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우선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소득보고를 마친 후에 보내는 돈에 대해서는 금액에 제한없이 송금할 수 있다. 미 연방 국세청에 따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해외

도소득이나 예금 이자 등 투자소득에 대해서도 보고를 제대로 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니중여라도 연방 국세청에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질문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에 있는 은행에 10,000불 이상을 예치해 두고 있다면 개인 세금 보고시 Schedule B의 해당란에 표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6월 30일 까지 양식 TD F 90-22.1을 통하여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에 보고해야 한다. 2011년도 부터는 연말 기준으로 50,000불이 넘거나 1년중 어느 시점에서든 100,000불이 넘는 금융자산을 보유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하는 경우에는 100,000불, 200,000불이 기준)하는 경우에는 양식 8938을 통하여 미 국세청에 4월 15일 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불우이웃 돕기 라인댄스 강습

라인댄스 개강합니다.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강습비 전액은 불우이웃 돕기 기금으로 보내드립니다.

혼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댄스 스텝 및 순서 설명서를 매주 배부합니다

강습 내용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YouTube와 하상문화방송을 통해 방영합니다.

- 개강일시: 2012년 4월14일 (토) 오전 11시
- 강습기간: 8주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12시15분)
(오전 11시~11시 15분: 배운 댄스 복습)
- 장 소: 성 정 바오로성당 친교실
- 강 사: 홍 세실리아
- 제한인원: 30명 (선착순)

- 수강료: \$80
- 복 장: 평상복, 가족바닥이면 좋은 구두
- 등 록: 성당 친교실 원주카리타스 데스크 (매주 일요일 오전 9시~11시30분)
성 정 바오로성당 사무실 (사무실 업무시간)
- 문 의: 원주카리타스복지재단 (571-432-9868)
성 정 바오로성당 사무실 (703-968-3010)



주최:  아름다운세상만들기 원주카리타스복지재단

선한 사마리아인

1 “어떠한 사람의 인생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하고 나면 결국 제로만 남지요.”

가깝게 지내는 친구분이 입버릇처럼 나에게 하는 말이다. 고사성어 새옹지마(塞翁之馬)를 현대식 감각으로 표현한 말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20세 약관의 나이에 마케도니아 왕위에 올라 거대한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건설하고 32세의 아까운 나이에 말라리아 병에 걸려 사망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아래와 같은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내가 죽거든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오. 만천하에 한 때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드로스도 떠날 때는 빈 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소.”

역시 ‘마케도니아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을만 한 불세출의 대영웅다운 유언이다. 그의 말이 맞다. 인생은 그 누구라도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는 운명을 피해나갈 수는 없다.

2 나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60여 개의 우화들을 아주 좋아한다. 아무리 되풀이해서 읽어도 어렸을 때 읽었던 이솝의 우화들처럼 싫증이 나지 않고 늘 새롭게 내 심금을 흔들어 놓는다.

누가 나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꾼을 한 명만 꼽으라’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예수를 꼽을 것이다.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 가르침의 핵심이요 전부다.

그런 면에서

그 사랑의 대상인 이웃이 무엇인가를 정의해 주는 아주 짙막한 이야기다.

어떤 사람이 여행중에 강도를 만나 모든 소유물을 빼앗기고 거의 반죽음 상태로 길가에 버려졌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한 성직자가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얼굴을 옆으로 돌린 채 피해 지나가 버렸다. 잇따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레위인이 그 옆을 지나갔다. 그도 성직자처럼 멀찍이 길을 피해 지나가 버렸다. 마지막으로 한 사마리아인이 그 현장을 지나간다. 그 당시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인종튀기라고 온갖 멸시를 받고 있었던 천민이었다.

그는 그 나그네를 발견하자마자 달려가서 값비싼 기름과 포도주를 쏟아부어 응급치료를 한 후 자기 낙타 등에 태우고 인접 여관을 급히 찾아갔다. 그리고 주인 장에게 충분한 돈을 건네주며 나그네의 치료를 간곡히 부탁했다. 아마도 그는 하루하루 일을 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보파리 장사꾼이었을 것이다. 그는 환자의 완쾌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애처로움을 간직한 채 길을 떠나야 했다. ‘만약 치료비가 부족하면 돌아오는 길에 꼭 갚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남기고.

그는 요즈음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사람이다.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순진한 바보천치일지도 모를 일이다.

3 나는 여지껏 노상에서 강도를 만났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죽 칠칠치 못하면 백주 대낮에 강도를 만나?”하고 비난을 해 온 사람 중 한 명이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는 “사건의 자초지종도, 근본도 모르는 남의 일에 왜 끼여들어 위험스런 고생을 사서 하느냐? 물에 빠진 놈을 구해주면 적반하장으로 자기 보파리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 요즈음 세상이야!” 하고 거침없이 힐난을 해왔다.

솔직히 성경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시대를 잘 만났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 당시는 요즈음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악아빠진 세상이 아니었을 테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오랫동안 노상결인들을 찾아다니며 헌신적 봉사를 해온 한 글벗이 나에게 이런 실망에 찬 이메일을 보내왔다. “내가 마치 결인들을 육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실망에 전적으로 수긍이 간다. ‘가난은 하느님도 어쩔 수 없다’는 옛말도 있지

않는가?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인연이 바로 이웃이었다.

둘째, 그는 자신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다.

셋째, 그의 선행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회용이었다. 인간들의 사랑은 깨달음처럼 순간적 행위일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위대한 영혼도 일방적인 사랑이나 자선행위를 지속적으로 베풀다 보면 지치고 실망하기 마련이다. 지속적인 사랑은 자칫 잘못하면 우상으로 변해 버리고 그 우상은 결국 위선으로 타락하고 말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인간 사랑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

4 아무튼 나는 이 우화를 읽을 때마다 마치 가시방석 위에서도 앉아 있는 사람처럼 마음이 찢려온다. 나는 평생을 늘상 선한 사마리아인들과 마주치기를 학수고대하며 살아 왔다. 심지어는 이를 위해 열심히 기도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일회용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해 본 기억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일부러 외면하고 기피해 왔던 사람이 나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끔 내 지난 삶의 대차대조표를 계산해 보곤 한다. 아무리 플러스 편을 후하게 쳐서 계산해 보아도 사랑면에서만큼 내 인생은 마이너스다. 빚쟁이 인생이다.

신이 당장 이 순간에 나를 천당과 지옥, 두 문앞에 불러 세워놓고 천당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커트라인 점수가 제로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보자. 눈앞이 캄캄해진다. 나는 입에서 변명 한 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머리를 꼭 숙인 채 지옥문 앞으로 걸어가야 할 것이다. 더더구나 사도 바오로라도 나타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주장을 하는 날에는 나는 아예 지옥문도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지 못할 것이다. 나의 지난 인생은 팽과리 소리만 요란했던 빚쟁이 인생이었으니까.

버지니아 숲 속에서
해암 박평일 드림



Having a husband who loves cooking is a blessing as well as a hardship. The upside is not having to do any meal planning (I still remember how much my mother hated to think about what to tell her cook to prepare different dishes every day), plus not having to cook three times a day (I just have to show up at the table when he calls to tell me that meals are ready). The downside is that I have to ‘tolerate’ endless and seemingly unnecessary shopping trips in search of some odd ingredient. To find this cannot-live-without item, we often end up visiting several specialty stores, or just plain markets, no matter how distant from each other. But this is where serendipity sometimes strikes. For example, on one shopping crawl I met a darling man whom my husband Richard calls my ‘flirty Polish boyfriend.’

That happened many years ago when we lived in a suburb of New York, called Westchester County. Richard was in ‘urgent’ need (it’s always urgent) of slab bacon. Asking around, we learned that we could get it in Polish butcher shops in the East Village. In those days, the East Village was not a place tourists or diners visited; those on the street were mainly local residents. It was a highly mixed ethnic neighborhood, but gentrifying and filling up with a variety of new immigrants to replace the Poles who had lived there for decades. “Ethnic is good, and it makes for an interesting place to visit,” Richard declared. Off we went there by a train and a subway.

Walking through the rather quiet East Village, we spotted a Polish butcher shop. As we walked into it, an old man (old enough to be my father, anyway) greeted us with a charming smile. He was slight, had thin white hair, wore a white apron, and had a pair of dark rimmed eye glasses. When Richard asked him about slab bacon, the Polish butcher, twinkles in his eyes, practically levitating, led Richard to the meat case to show the wonderful things on offer. “Look at dis! What you dink abut det?” He said in his heavily accented English, pointing to one tray of meat after another. We got carried away and bought several kinds of meat. A lot of meat, far more than I thought we could ever use. “Never mind,” Richard assured me with excitement in his voice, “This is exactly what I needed. Really great stuff here.” While chatting up Richard, the butcher kept glancing at me, obviously ‘flirting.’ I was amused and Richard thought it all hilarious.

The old man asked if I had ever tasted ‘babka.’ What the heck is babka? I wondered. Seeing my head shaking, he led me over to a rack full of very large bread-cake loaves, which he said tasted like Panettone. I must have been under his spell, too, since I bought one of those huge loaves with no idea whether it was any good. As we were, finally, heading for the door, our Polish butch-



My Polish Boyfriend

Sawon Hong, Ph. D

〈UN Retiree, Former UNICEF Regional Advisor on Child Protection〉

er asked me to wait. Then, he rushed over and took a photo hanging on the wall of the store. It was a picture of him. “I want you have dis to remember me!” He signed it with a flourish and gave it to me saying, “Promise me det you come back.” Feeling a bit overwhelmed, I simply nodded. We had his photo framed and kept it in our New York kitchen until we left for India.

We never forgot that lovely man and decided to visit him during a recent visit to New York. The East Village has changed tremendously: so many, mainly ethnic, restaurants—Indian, Japanese, and Korean-lined the busy streets. The area also offered a mix of low budget and somewhat upscale stores. No sign of anything Polish and no butcher shop! We became disoriented and began to despair.

We asked several people on street if they knew where the Polish butcher shop was: none had any idea what we were talking about. As we were nearly ready to concede defeat, we spotted a tiny Polish deli across the street. Ah hah! Surely they would know about our Polish butcher shop. We went in to ask.

“We came here years ago to an excellent butcher shop, run by a charming old man.”

“He is dead.” The middle-aged shopkeeper, behind the glass case and cash machine, knew immediately whom we were referring to.

Shocked, Richard and I responded simultaneously, “Oh, no! When did that happen?”

“Happened about two years ago. He was visiting his daughter in Arizona and had a heart attack. He died there.”

“What about the butcher shop?”

“He closed it a few years before. His children had insisted that he retire and enjoy life. He had lots of money. But then, he didn’t live long enough to enjoy it. He was a good man. His wife used to come here every day after he closed his store.”

We were dumbfounded. We were sad that we wouldn’t see him again. I was almost angry at him: I came back as you asked me, and you are not here!! “Where, then, people buy meat around here?” Richard was still interested in meat shopping.

“Here! I sell good meat.” The man proudly gestured toward a pitifully small selection of meat. Seeing what he had, I thought, this is so unlike my old Polish friend’s shop: his was at least four times bigger and offered every cut imaginable. To be fair, as small as this deli store was, it seemed to have at least small amount of almost everything that a Polish housewife needs for her cooking. Browsing the shelves I found all sorts of cans, jars, and boxes of Polish wonders, such as grated celery root, beets prepared in ten different ways, and pickles of all kinds. Moreover, there was a stack of Polish-language newspapers at the entrance. Every one of the stream of women shoppers of all ages appeared to be ethnic Pol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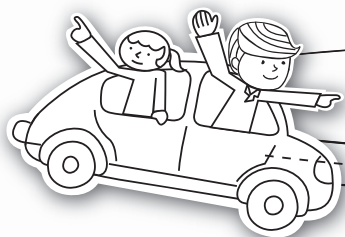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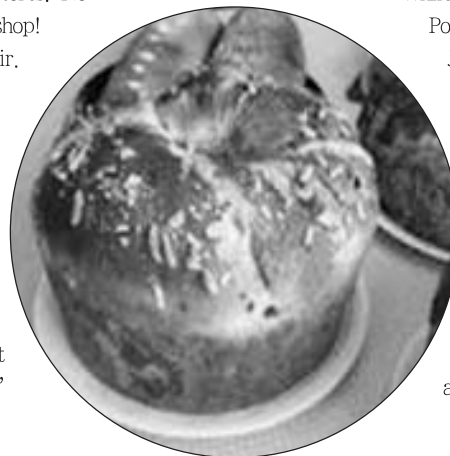
“How long you have been here?” I asked the friendly shopkeeper, who had only a slight, indistinguishable accent.

“A few years. I am from Israel. I married to a Polish woman who owns this store.”

While I automatically assumed that she must be a Polish Jew, Richard wondered later how a Jewish man ended up marrying a Pole, given alleged anti-Semitism of Poles during the Hitler days.

We bought a small package of smoked ham and were about to leave when Richard asked the Israeli man, “Where can we find really good babka around here?”

“Look right there in the window. I have them. Two kinds, one with cheese and regular. Take a look.”



Knowing how much I loved babka, Richard insisted that we buy a loaf. Although I was dying to have one, they were alarmingly large. I weakly protested that I wouldn't be able to finish an entire loaf before we left New York. At Richard's urging, I happily complied. Since we didn't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one with cheese and one without, we asked one of the shoppers for advice. At her recommendation, we chose one without cheese.

As we were paying for the babka, the shopkeeper cut off a big chunk of warm sausage from a tray fresh from the oven, and offered me a taste. "It's the best sausage you have ever tasted," he assured me. Although it didn't look appetizing, I accepted it, just to be civil. What a surprise! It was soooooo delicious! I insisted that Richard taste it also. He loved it, too, and asked for one large piece to add to our package. Since we were tourists and didn't plan to do any cooking, we acted out of sheer compulsion. As the shopkeeper wrapped up our purchases, he gave me the rest of the sausage, a big piece, saying: "Please enjoy it on your way home. You will come back for this." He is damn right. I will have to go back for that sausage!! I said myself. Not only was the sausage great, the babka was heavenly. I polished off the whole lot in two days, all by myself.

As nice as the Israeli storekeeper was, and as delectable as his meat and babka were, he'll never take the place in my heart occupied by 'my' Polish friend, who gave me

his autographed photo so many years ago. Walking away from the East Village, already munching on babka and finishing the last bits of sausage, I felt acute feelings of loss. It's strange to feel such loss for a person whom I hardly knew. The soft, golden afternoon light on that winter's day made me feel even more melancholy. I whispered, Goodbye my dear, charming, flirty friend.

I, then, realized that I no longer had his photo. Last summer when we were preparing to sell our house, we had to relentlessly discard anything which would not fit into our new scaled-down, simpler life. For over a week, I went through all the old photos and albums, and, with steely resolve, threw away most of them. I remember putting his photo in the 'to-dispose' box with guilt feelings. Had I known that he had gone, I would have kept it. How shortsighted I was. Now, I only have my intangible memory of him, which might fade away with age.

On the way back to the apartment where we were staying, we noticed an art installation of a huge pink rose high up on the New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ilding, which is a stunning piece of architecture, all silver and tippy boxes. The rose was made by the German sculptor Isa Genzken and is called "Rose II." That one pink rose reflected on the silvery walls of the Museum by the afternoon sun brightened my heart. It was as if my Polish friend was sending me a rose! I waved to him, mouthing Thank you, my friend. I will not forget you. Sawon January 2012

요리를 즐기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은 한편으로는 축복이나 또한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좋은 점은 식단 짜는 일과 하루 세 끼 음식 만드는 일에서의 해방이고 나쁜 점은 내 생각에는 불필요한 아주 특별한 재료들을 구하러 다니는 일이다. 이 '꼭 필요한' 재료들을 사기 위해 우리는 거리와 상관없이 재래 시장이나 특별한 것을 파는 가게 등을 다니곤 한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 우연히 특별한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

몇년 전 우리가 Westchester County라 불리는 뉴욕 교외에 살던 때의 일이다. 내 남편 Richard가 두꺼운 베이컨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수소문 끝에 East Village의 폴란드 사람이 경영하는 정육점에서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만 해도 East Village는 여행자와 식당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사는 주택가였다. 몇 세대째 그곳에서 살고 있는 폴란드인들을 새로 이민 온 다양한 인종들이 대치하며 고급화되고 있었다. Richard는 '다민족이 산다면 재미있는 곳'이라 해서 우리는 기차와 지하철을 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다소 한적한 East Village에서 폴란드 고깃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게에 들어서자 노인 한 분이 매력적인 미소로 우리를 맞았다. 작은 체구에 덩성한 흰

머리, 그리고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짙은 색 테의 안경을 쓰고 있었다. Richard가 두꺼운 베이컨을 찾는다고 하자 이 폴란드 친구는 눈을 반짝이며 날듯이 걸어 Richard를 고기 진열대로 안내했다. 그리고는 폴란드 억양이 짙은 영어로 "이건 어떠세요?"하며 여러가지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마치 흥분듯이 여러가지 고기를 샀다. Richard는 "이게 내가 정말로 원하던 거야. 이 가게는 정말 굉장해"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주인은 Richard와 이야기하면서도 연신 나를 힐끗힐끗 보았고 Richard는 이 광경을 즐기는 듯 했다.

주인 노인은 내게 'babka'를 먹어봤느냐고 물었다. 내가 고개를 흔드는 것을 보고 그는 파나토네 비슷한 맛이라 설명하며 케익과 빵들이 있는 진열대로 나를 끌었다. 나 역시 그의 마술에 걸린듯 어떤 맛인지도 모르며 커다란 빵덩이를 샀다. 우리가 가게 문을 나설 때 주인은 내게 기다리라고 말하더니 가게 벽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었다. 그의 사진이었다. 사진에 서명 하며 "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이 사진을 네게 준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다시 온다고 약속해요"라고 했다. 나는 당황

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우리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우리가 직장 관계로 인도로 이사하기 전까지 부엌에 걸었었다.

그를 항상 기억했기에 우리는 지난 뉴욕 방문 때 그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East Village는 엄청나게 변해 있었다. 거리에는 인도, 일본, 한국 식당 등 여러나라 식당들과 저렴하나 고급 풍의 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실망스럽게도 폴란드 사람이나 폴란드 정육점은 볼 수 없었다.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 보았으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실망하여 찾는 것을 거의 포기했을 때 길 건너에 폴란드 델리샵이 보여 반가이 들어갔다.

"전에 매력적인 폴란드 노인이 운영하는 정육점에 온 적이 있는데요." 하자 진열장과 계산대 뒤에 서 있던 중년의 가게 주인은 "그 분은 돌아가셨어요"라고 말한다.

Richard와 나는 놀라 동시에 "아니, 언제요?"라고 물었다. "약 2년 전입니다. 아리조나 주에 있는 딸을 방문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심장마비가 와서요"라는 대답이다.

"그럼 정육점요?" 라고 묻자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닫았지요. 자녀들이 은퇴하고 즐기며 살라고 우겨서요. 돈은 많으셨지요. 그러나 즐기실 시간이 많지 않았네요. 좋은 분이셨지요"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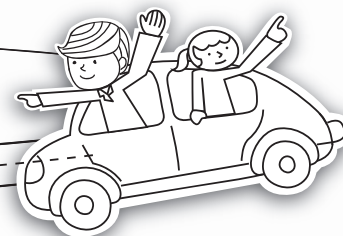
우리는 아연실색하고 말을 잊었다. 다시는 그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슬펐다.

East Village에서 걸어오며 나는 심한 상실감을 느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게 이상하지만. 어쩌면 그 겨울날의 부드러운 햇살이 나를 감상적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니 내게 그의 사진도 이제 없다. 지난 여름 집을 팔기 위해 내놓으며 집을 정리하면서 그 사진도 없애버린 것 같다.

우리가 머무르던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서 New Museum of Contemporary Art 건물 앞에 설치된 거대한 분홍빛 장미를 보았다. 독일 조각가 Isa Genzken의 "Rose II"라는 작품이다. 은빛 건물을 배경으로 한 분홍빛 장미가 내 마음을 밝게 해 주었다. 마치 내가 이 장미를 폴란드 친구로 부터 받은 것처럼. 나는 그에게 손을 흔들며 "고마워, 친구. 당신을 잊지 않을 거야"라고 말해본다. **홍사원 박사** <전 UNICEF 아동복지 자문관> <발체 번역·편집실>

나의 폴란드 친구



독거노인들의 겨울나기 돕기 ... 기금 7천 달러 조성

카리타스, 난방비지원 기금모금 미용이벤트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사장 곽호인 신부, 회장 유흥열)은 지난해 10월 29일, 30일 양일간 성 정 바오로 성당 친교실에서 가진 고국의 독거노인 겨울 난방비 지원을 위한 미용이벤트를 열어 총 6,850달러를 모금, 강원도 산간지역과 저소득층 불우이웃의 겨울 난방비로 보냈다.

느미라지 토탈 헤어살롱의 특별후원으로 마련된 행사에서는 케서린 박 원장을 비롯한 8명(앤 리, 소피아 김, 리디아 신, 안나 황, 진 오, 이희영, 재클린 리)의 헤어 디자이너들이 '사랑의가위'를 들고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의 머리 손질에 나섰다.

가을비와 첫 눈이 내려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진 29일 아침,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이발 후 모금함에 성금을 넣은 곽호인 주임신부는 "한국에는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도 호적에 자식이 등재돼 있어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 노인가가 많다. 독거노인과 조손(祖孫)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장에는 원주 카리타스 유흥열회장 과 성당 노시창 사목회장, 한중희 부회장 등이 자리를 지키며 행사를 독려했다.

느미라지 헤어살롱 케서린 박 원장은 "10-15년 전에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처음 이벤트를 시작한 지 5년째"라며 "이번 이벤트에서 1만 달러를 목표로 했으나 수년간 지속된 불경기과 첫날인 29일 일기가 안 좋아선지 목표액에 미치지 못한것 같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또한 "신문기사를 보고 멀리서

일부러 행사장을 찾아 주시는 분들과 말없이 모금함에 성금을 넣어 주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다"고 밝혔다.

카리타스의 유흥열 회장은 "행사 첫날인 29일에는 워싱턴 지역에 비바람과 우박이 내려 모금상태가 부진했으나 다음 날에는 헤어 컷 손님이 몰려 미용사분들이 점심도 못 드실 정도였다. 수고해 주신 느미라지 측과 동참해 주신 여러분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행사는 올해로 5회째이며 지난해에는 8,310달러를 모금, 강원도 산간지역 50여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했다. 2008년부터 매년 미용이벤트를 벌여 온 느미라지 토탈 헤어살롱은 지금까지 총 4만여 달러의 후원금을 조성, 카리타스를 통해 고국의 불우이웃에 전달했다.

헤어컷은 여성 15달러, 남성 10달러, 70세 이상 시니어는 5달러. 초등학교 이하는 10달러(여) 7달러(남)에 제공되었으며 행사장에서는 미용실 상품권도 특별할인가에 판매되었다. 헤어컷 수입금 전액과 상품권(파마 & 헤어컷, 스킨케어, 타투/반영구화장, 점과 잡티 제거, 개인 메이크업 강의 등) 판매액의 50%는 카리타스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적립되었고 행사장에서는 무료 메이크업 강의 및 피부상담도 곁들여졌다.

정영희

(원주 카리타스 편집인·한국일보 편집국 부장)





미용
이벤트

미니홈피



기빙 트리에 달린 ‘사랑과 희망’

카리타스, 불우아동 성탄 나눔 캠페인 ... 1003명의 산타 탄생

원주카리타스복지재단(이사장 곽호인 신 부)이 한국을 포함한 4개 국가의 불우어린 이들을 돕기 위한 ‘기빙 트리(Giving Tree)-산타가 되어 주세요’ 캠페인을 전개 하였다.

카리타스복지재단은 지난 11월27일 웨어 팩스 소재 성 정 바오로한인성당 입구에 대 형 크리스마스트리 2개를 설치하고 캠페인 을 시작했다.

기빙 트리에는 여러가지 모양의 크리스마 스 장식(오너먼트)이 걸렸는데 각 장식에는 불우아동들이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 내 용이 적힌 산타에게 보내는 편지/카드가 붙 어있다.

카리타스 복지재단이 올해 4회째 벌인 ‘기빙 트리’ 캠페인은 후원자들이 20불씩 내고 편지가 붙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가져 가며 산타 결연이 된다. 결연이 되면 편지 가 붙은 장식은 산타가 되어주신 분의 이름 이 적힌 녹색 화환(리스) 장식으로 바뀐다.

캠페인에 참여한 기관은 한국의 천주교 원주교구 사회복지 사업위원회, 네팔의 산 타라니 학교, 파푸아뉴기니의 카리타스 수 녀회, 필리핀 빠야따스의 카리타스 수녀회 등 평소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 후원하 고 있는 4개 국가의 시설들이다.

편지를 보낸 아동들은 한국(18개 시설의 338명), 네팔(산타라니 학교와 고다와리 지 역의 가난한 아이들 220명), 필리핀 (빠야따스 어린이 집 아이들 309

명), 파푸아뉴기니(136명) 등 4개국에서 1003명으로 지난해의 892명보다 110여명이 더 많았다 .

여러가지 모양의 크리스마스 장식은 캠페 인을 시작한지 3주만에 모두 녹색 화환 장 식으로 바뀌었다. 1003명의 산타가 탄생한 셈이다. 한겨번에 10개씩 사 주신 분도 많 았고 자녀들을 앞장세워 자녀들에게 산타가 되도록, 나눔 실천을 배우도록 하는 부모도 눈에 띄었다.

강원 산간 지역의 어린이들은 춥지 않게 학 교에 다닐 수 있도록 내복, 장갑, 목도리 또 는 낡은 책가방 대신 새 가방을 원하는 등 대 부분의 어린이들이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선물로 원했다. 한 아동은 추운 겨울에 일하 시는 엄마에게 드릴 목도리를 원하기도 했다.

네팔 어린이들은 책가방, 교복, 운동화, 학용품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원했 고, 필리핀과 파푸아뉴기니의 아동들은 고 무 슬리퍼와 그로서리, 케익, 사과, 아이스 크림 등 먹을 것을 선물로 원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곽호인 주임신부는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여러분의 사랑 나눔이 많은 불우한 아동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했다”며 고마 움을 전했다.

모금된 후원금 2만60 달라는 아동을 추천 한 각 복지시설이나 학교로 송금돼 각 기관 에서 어린이들이 산타에게 받고 싶어하는 선물을 구입, 성탄절에 맞춰 전해주었다.



산타편지 1

산타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저는 누리반 1번 한다정이에요. 전 파란색 종류의 목도리가 갖고 싶어요. 목도리를 어머니께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일하시는데 추우실까봐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전 어머니께 목도리를 선물해 드리면 소원이 없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될게요.
다정 올림



산타편지 2

산타 할아버지께.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9살 최새별이에요. 사실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편지를 써요. 크리스마스 때 공책, 지우개, 연필 등이 들어있는 문구세트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은별이 학용품은 많은데 제 공책이 9권 중 2권을 써서 미리 준비해 두려고요. 안 되더라도 편지는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려요.
새별 드림

산타편지 3

산타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저 아현이에요. 산타 할아버지 저 부탁 이 있어요. 안되더라도 들어만 주세요. 무슨 부탁이나 하면요 첫 번째는 제 책가방이 많이 닳았어요. 비씨지 않은 책가방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에게 목주 좀 주세요. 목주를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아현 올림

산타편지 4

산타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산타 할아버지. 저는 김수연이라고 해요. 크리스마스가 정말 기대되네요. 눈이 오면 많이 추워지겠지요. 산타 할아버지도 춥겠어요. 산타 할아버지 옷 챙겨 입고 출지 마세요. 산타 할아버지, 저 받고싶은 선물이 있어요. 바로 동화책, 만화책. 집 에 책이 별로 없어서 읽고싶어도 못 읽을 때가 있어요. 동화책은 읽으면 빠져들고 만화책은 우울할 때 읽으면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산타편지 5

My Dear Santa Clause, Happ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I like to have school bag, sweet, biscuit, Jacket, shoes and pants, Please send me, Thank you and God bless you,
Loving Child, Rom Lama (Nepal)

산타편지 6

I love you Santa, I want ice-cream,
Brian (Papua New Guinea)

산타가 되어투셔서 감사합니다



네 팔

안녕하세요.

네팔 김지나 레지나 입니다.

겨울이 오면서 네팔은 다시 하루 정전이 6시간 이상씩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겪는 일이라 그런지 이제는 지낼만합니다. 하루 최고 19시간까지 정전되었던 적도 있었던지라, 6시간은 견딜만 합니다.

보내주신 산타 선물비는 네팔 루피로 환전하여(5,016,560원=352,800루피) 12월 4일 주일 미사후 이멜다 수녀님을 만나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뒤 수녀님과 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선물을 준비하였고, 12월 9일 (금요일) 오후2시 산띠라니 학교에서 산타 선물 행사를 가졌습니다.

산띠라니 학교 학생님, 주변의 공립학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 그동안 무료 점



심을 산띠라니학교에서 드셨던 환자분들 등 모두가 함께 하는 행사를 가졌고, 겨울 외투, 스웨터, 추리닝, 머플러, 장갑, 양말, 구두, 타올 등을 수녀님들이 준비하셔서 오셨던 분 모두에게 작은 무엇 하나라도 드렸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점심 특별식도 나누셨고, 모두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행사하는 날 촬영한 사진들 보내드립니다. (첫번 사진은 이멜다 수녀님께 선물비 전해드리는 사진입니다. 이멜다 수녀님과 저 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멀리 미국 버지니아에서 마음 따뜻한 누군가가 보내주신 선물들을 네팔 어린 이들도 오래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팔에서 김지나 레지나 드림



희망의 산타



한 국

‘희망의 산타’는 특정 하루에 선물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약 3달간 진행이 되며, 10월 아동 선정부터 시작됩니다. 아동들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소원과 사연을 적은 편지는 원주 카리타스 버지니아 복지재단으로 보내지고, 미국에 계

신 후원자님들께서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각 아동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사업으로 정성을 가득 담아 진행했습니다.

희망의 산타는 12월 23일(금)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코가 빨갛게 변하고, 무척 손이 시렸지만 산타와 직원들은 신나게 악기를 연주하며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를 부르며 아동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빨간 산타 복장을 한 두 명의 산타는 하얀 수염을 달고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선여야~~ 허허(웃음) 올 한해도 착한 일을 많이 했구나!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고, 내년에도 착한 일 많이 해서 또 보자. 허허(웃음)”를 외치며 선물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산타가 왔네??”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선물을 받은 아동, 산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산타 할아버지~~”를 외치며 와락 껴안은 아동, 산타 할아버지께 “산타 할아버지! 우리 집 올 때, 진짜 루돌프 타고 왔어요??”를 질문하는 호기심 많은 아동, 산타 할아버지께 선물을 받고 산타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고맙습니다!”를 외치던 아동까지 각각의 반응도 달랐지만 선물을 받고 난 후 아동들의 함박웃음은 똑 같았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에서 후원해주신 1,011,6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세대, 조손세대, 한부모세대, 장애인세대, 버지니아 결연아동 등 총 53명에게 선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거의 없는 아동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선물을 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미정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

지적장애우를 위한 시설인 ‘천사들의 집’에서 ‘산타가 되어주세요’ 행사를 마치고 각 반의 교사들이 보내온 감사의 글을 소개한다.

〈편집실〉

감사하는 집

원주 카리타스 버지니아 복지재단에서 보내주신 정성으로 아동을 각자 원하는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식사 시 식판이 필요한 친구들은 새로 받은 식판으로 즐거워하며 맛있게 식사를 하였고, 샌드백을 선물 받은 친구들은 샌드백을 툭툭 치며 스트레스도 풀어 보며 신기해하고 좋아하였습니다. 장난감 농구대도 선물 받아 공을 농구굴대 그물망에 넣어보면서 잘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넣으면서 신나하고 즐거워하며 한참을 잘 노는 친구들~ 이렇듯 아동들이 받은 선물들을 맘에 들어 하는 것을 보며 교사들도 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착한 일을 하면 산타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생각을 하며 한 해 동안 착하고 건강하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아동들이 선물을 받고 행복해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아동들을 돌봐주는 저희 교사들도 아동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여 더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아동들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생각해 보고 아동들이 좋아할 수 있는 선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원해주신 후원자님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항상 밝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평화있는 집

해마다 우리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올해는 어떤 선물을 주실까? 나는 한 해 동안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을까 생각도 해보면서요.

아이들은 어떤 선물을 받든지 좋아하고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1년을 보내고 있어요. 올 한 해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도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하면서요. 선물은 사랑들을 항상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올해도 어김없이 선물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될게요!! 산타 할아버지 항상 지켜보고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행복있는 집

특별한 날 소중한 선물을 받아 행복했습니다. 각 아이들 마다 갖고 싶은 선물을 준비해 주었더니 너무 좋아하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

다. 선물을 받은 아이들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어떤 아이는 선물을 받자 ‘우와! 목도리랑 장갑 이당~ 너무 예뻐요’ 하며 방방 뛰어 다니고, 받은 선물을 착용하며 친구들이랑 선생님께 예쁘다고 하루 종일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물을 받고 포장을 뜯는 모습에서 행복함이 가득한 모습에 제 눈에 눈물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신만을 위한 선물을 받아서인지 평소보다 더 자신감을 보이고 행복해

하는 모습에 보는 사람도 감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각자 받은 선물을 확인하고 아이들이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은지 “어떤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되나요?”라고 질문을 하더군요.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주신 분들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감사의 기도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모습에서 누군가를 위해 진심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의젓하고 제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선물을 보내주신 분들께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 지~ 우리 아이들 마음에 항상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 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을 작성하면서 아직도 귓가에 아이들의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아이들은 루돌프를 타고 산타 할아버지가 밤에 몰래 오신다고 마음속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마음에 따뜻한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언젠간 여러분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 할 수 있는 훌륭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웃음있는 집

매년 후원해 주시는 분들로 인해 동심 속에 사는 아동들에게 ‘산타가 되어주세요’ 선물은 일 년 중 아이들이 제일 기다리는 시간 중의 하나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산타가 되어주세요’에서 지급된 돈으로 교사는 아이들이 평소 원하던 물품을 구입합니다.

12월 24일 저녁 산타 분장을 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선물도 나누어 주고, 덕담도 해 주십니다.

아이들은 반응도 좋고 늦은 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교사 또한 이런 후원에 대해서 너무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지가 있는 아이들은 그맘 때쯤 같이하는 ‘천사예술회’가 끝나면 의례히 묻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오늘 선물 가지고 오세요?” 라고 ...

어떻게 보면 우리 시설에서는 연례행사가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아동 개인, 개인이 가장 원하는 물품을 아이들이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후원보다도 아이들 스스로가 크게 와닿는 행사이기에 항상 새롭고 기분 좋은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서로 돕는 집

우리 아이들 중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은 시계를 받고 싶다고, CD를 갖고 싶다고, 신발이 필요하다고 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산타선물을 받을 기대감과 기쁨으로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후원자님들의 한분 한분의 정성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행복하게 해 주시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함을 느낍니다.

등산을 갈 때 입을 수 있는 바지를 사다 주었더니 너무나 좋아 합니다. 등산할 때 바지에 기모가 들어가 따뜻하니 좋다고 T-셔츠도 기모가 들어가 있는 것을 입고 즐겨 입으면서 다른 것을 입어야 하는데도 세탁을 하면 바로 그것을 입고 있는 모습에서 자신들을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대견하기도 하며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셔서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님들께 감사함을 더 느낍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후원자님들 댁내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늘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은혜있는 집

안녕하세요? 여기는 날씨가 무지 추운데 거기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작년 성탄절에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성탄 선물을 전해 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글로 옮기려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리 친구들이 성탄절 날 받고 싶었던 선물들을 하나하나 적어보면서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돌더라고요. 이 친구에게는 무엇이 좋을까? 저 친구에게는 무엇이 좋을까? 정말 행복한 고민을 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비싸고 정말 대단한 것 보다 감사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으면 행복해지듯이 우리 친구들이 그랬어요.

은주라는 친구에게는 움직이는 강아지를 선물로 주었는데 얼마나 좋아하던지~ 특유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또 수빈이라는 친구는 평소 배개를 잘 끌어안고 있어서 이번에 선물을 안고 잘 수 있는 인형 배개를 주었더니 다른 친구들 배개를 빼앗지 않고 그 인형을 잘 안고 잠자리에 들어요. 또 순덕이라는 친구에게는 여가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만들기 재료를 주었더니 조용히 방에 앉아서 만들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요.

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무릎 담요를 덮어 주었어요. 그 덕에 올 겨울 감기에 걸리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요. 또 이것 저것 다양하게 많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마다 우리 친구들을 잊지 않고 성탄선물을 챙겨주셔서 저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두서가 없죠.

우리 친구들이 아마 마음속으로 성탄선물을 전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몰래 기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하시는 일 잘 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친구들에게 또 성탄 선물을 전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그것을 마음으로 전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있는 집

아직도 행복을 전해주는 산타 클로스 할아버지가 있음을 확인하는 아이들의 작은 흥분과 설렘과 기다림 속에 다가오는 성탄절에 매해 마다 잊지 않으시고, 아이들에게 큰 기쁨을 선물로 전해주시며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사랑 받은 12명의 아이들 중에 뽀로로를 사랑하는 초등학생들이 10명이나 되는 개구쟁이 천사들이 살고 있는 반입니다.

12월이 되면 천사예술제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들어주는 캐롤 음악에 흥분하며,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고 싶어 하는 행복을 이야기 하지요.

올해 저희 아이들은 몇 몇 아이들의 주도로 인해 모두 자신의 차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양손에 모두 자신의 이름을 단 차를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형차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마트 이름을 단 배달트럭, 각양각색의 승용차, 뽀로로 인형들이 장착되어있는 형형색색의 차, 건축에 사용되는 포크레인, 레미콘차, 버스, 경찰차. 준비를 하다 보니 저희들도 깜짝 놀랄만 할 정도의 30여종의 차를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성탄절 아침 수많은 종류의 차를 보면서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서로 자신의 애장품이 될 차를 고르며 토닥거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달려가 자랑을 하며, 차 소리를 내며 경주를 하며 승리에 거들먹거리며, 요즘도 아이들의 손에는 차가 떠나지 않고,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차를 몰래 옷장에 숨겨 두었다가 불을 끄고 자야하는 시간



2011년 12월 25일 강원도 횡성군 산타 할아버지 뒹다!

안녕하세요.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아동 담당 사회복지사 송현아입니다.

경제위기 여파에도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어 추운 겨울 꽁꽁 얼었던 어린이들의 마음에 환한 불빛을 안겨주어 너무나도 따뜻한 성탄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선물은 군 단위에서도 더욱 벽지 지역에 위치한 면 단위 아동 80명에게 ‘몰래 산타’가 되어 희망을 선물하였습니다. 순수한 동심을 가진 어린 친구들은 산타 분장을 하고 찾아간 담당자를 보며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의심하기보다 숨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놀란 토끼눈이 되어 신기해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산타 할아버지인줄 알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착한 일을 많이 하지 못해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친구를 보며 마음속이 찡해움을 느꼈습니다.

가정환경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마음속으로 설레어하고 기다렸을 성탄절. 그러나 항상 실망감으로 바뀌었을 성탄절. 이제

에 차와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서로 부러워 할 것 없이 공평하게 10명의 아이들에게 자신이 소중히 아껴 주어야 할 자신의 물건이 생겼다는 사실이 이번 성탄절,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나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선물을 받고 행복해 하는 아이들의 환하고 밝은 웃음을 함께 나눌 수 없음을 아쉬워하며, 각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천사들의 집 천사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선물해주신 버지니아의 정성 가득한 손길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저희들도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디해있는 집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을 1년 내내 기다리며 성탄절 노래를 부르는 우리 아이들..

그 어떤 것 보다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 자제만으로도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 한 편이 따뜻해집니다.

가끔은 집이나 자동차, 소방관 아저씨, 경찰 아저씨처럼 말도 안 되는 선물을 받고 싶다고 기

야 설레고 기대했던 성탄절의 기쁨을 선물하게 되어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고개가 숙여지고, 동시에 아이들의 웃음을 보며 기쁨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즐거워 성탄절 선물과 함께 어린이들을 위해 지역사회와 손잡고 매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열리는 행사와 차별화를 두고 보편적으로 도시에 비해 문화적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농촌지역 횡성군의 어린이들을 위해 우수한 문화예술공연을 기획하여 관내 모든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선물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자신의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버지니아 후원회와 지역사회 공동으로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탄절 어린이들의 우렁찬 목소리를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도하기도 하지만, 누가 이 아이들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다가올 성탄절에도 선물을 받기 위해서 매일 매일 착한 일을 많이 하겠다는 우리 아이들, 선생님 말씀 잘 들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아이들, 친구들과 싸우지 않겠다는 우리 아이들..

벌써부터 우리 아이들은 성탄절과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까지 착하게 지내겠다는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킬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다운 집

정다운 집 아이들이 산타 선물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원하던 것을 받아서 그런지 몇명 아이들을 제외 하고는 선물을 주자 끌어안고 몸을 들쭉거리면서 흥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아는 빨간 부츠를 선물 하였는데 혼자 잘 신지는 못하지만 신발을 신었다가 벗었다가를 반

복하면서 좋아하였습니다.

우리의 은미양은 예쁜 노트, 책 등을 주었더니, 한시도 손에서 떼지를 앉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나 목욕을 할 때나 손에 꼭 쥐고 놓지를 않아서 계속 놓고 무언가를 하라고 알려줄 정도로 좋아하였습니다. 영희도 노트를 좋아해서 은근슬쩍 뺏으려고 하면 어느새 영희한테 달려들어서 다시 빼앗아보고 하였습니다.

영희도 책을 좋아해서 책 선물을 주었는데 자신의 손에 책을 쥐고 있으면서도 은미의 것이 마음에 들었는지 은미 책을 뺏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영희의 것이 더 좋은거야 라고 알려주었더니, 큰 소리로 웃으면서 책을 꼭 가슴에 껴안고 흔들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미는 선물을 받으면서 “아이고 좋아라” “좋다”라는 말을 수시로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선미는 예쁜 티셔츠를 주었는데 티셔츠를 입고 나서도 웃을 만지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좋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성경이는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과자를 한 가득 가슴에 안겨 주었더니, 고개를 흔들면서 손으로 과자를 만지작거리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사가 과자 하나라도 가지고 가려고 하면 아는지 몸으로 과자를 막는 행동을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슬기랑, 예지는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라서, 동요, 클래식, 트로트 CD를 사다 주었더니, 선물에는 그다지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오디오에 CD를 넣고 틀어주었더니, 그제서야 좋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슬기는 동요에도 엉덩이를 흔들고 방방 뛰는 모습을 보였으며, 예지는 뛰고 흔들지는 못하였지만 웅알웅알거리고 환하게 웃어 주면서 선물에 대한 보답을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지연이는 운동화만 있어서 겨울에 추울까 봐 예쁜 털 부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우리 지연이가 학교를 가던지, 어디를 가던지 발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표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장갑과 목도리, 모자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번 겨울은 우리 은표가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것 같습니다.

셋별이도 장갑과 모자를 선물로 받았는데 셋별이는 표현을 할 줄 아는 아이라서 그런지 교사를 쳐다보면서 선물을 내보이곤 하였습니다. 셋별이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라고 산타 할아버지께서 주신거라고 하였더니, 셋별이만의 미소를 보이면서 좋아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다운 반 공주님들은 산타 선물을 너무나 좋아하였습니다. 예쁘게 잘 입고, 잘 사용하겠습니다.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은 아동결연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 네팔, 필리핀의 불우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다. 어린 나이의 아동들은 글을 쓸 줄 몰라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글을 쓰는 아이들은 서툴게나마 감사의 편지를 해당 시설의 복지사를 통해 보내 오기도 한다. 또한 후원을 받은 아동이 대학생이 되어 결연이 끝나면 그 동안의 후

원에 고마움을 전해 오기도 한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는 근래에 한국에서 보내온 감사편지들을 지면을 통하여 소개한다. 편지는 직접 후원하신 분들에게 전해졌고 여기에서 아동 이름은 아동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익명으로 한다.

〈편집실〉



후원자님께, 안녕하세요?

저 후원자님께서 후원해주신 신** (신은경(가명))예요.
그동안 건강하게 지내셨나요?

저는 올해 대학교 무역통상학과에 진학해서 아직은 1학년이라 전문적인 학과공부는 안 하지만 영어 등 외국어 공부도 하고 이번 여름방학 때는 등록금을 조금이나마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동안 후원자님의 후원과 관심을 받으며 공부해서 이렇게 대학생이 되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어 후원자님처럼 힘들게 공부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겠습니다.

후원자님께서도 어떤 힘든 일이 있으셔도 힘내셔서 극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 올림



버지니아 후원회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얼굴도 성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후원을 받고있는 저는 원주시 상지여중 3학년 김**입니다.

저는 163cm정도 되는 키에 얼굴은 동그랗고 눈, 코, 입은 작은 편이고 긴 머리를 좋아하지 않아 단발머리이고요. 친구들과 잘 어울릴 줄 아는 명랑하고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게 없는 평범한 학생이에요.

중학교 3학년이라 요즘은 고교 입시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여름방학에는 후원금으로 2학기 문제집을 사서 예습을 하고 학원은 다닐 수 없지만 독서실에 가서 공부했어요.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 어른이 되면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011. 8. 18 김** 올림



버지니아 후원회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유** 라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이에요. 저는 요즘에 친구들을 만나던지 책을 읽던지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요즘 무얼 하시는지요?

버지니아라는 먼 곳에서 저에게 후원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마 편지로 감사의 표시를 전합니다.

한국은 엄청 많이 더운데 거기는 어떤가요?

지금 제 나이가 열아홉 살인데 내년이면 후원이 끊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생 **한테 후원이 연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편지 쓰는 것을 잘 못해서 참 힘드네요. 어떤 말을 써야 할지 그래도 너그럽게 봐 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올림



안녕하세요. 저는 오**입니다.

저는 지난 2년동안 후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덕에 저는 영어학원에 다니며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 고마움은 제가 커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멋진 사람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주위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도 되고 싶습니다.

제가 글을 잘 쓸 줄 몰라서 길게 써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날씨도 점점 더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2011. 12. 18 일요일

오** 드림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버지니아 후원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시 우신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1반 박**입니다. 제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버지니아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후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할게요. 감사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공부 잘 한다고 장학금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11년 8월 19일 금요일
버지니아 후원자님께 감사하는 ** 올림



버지니아 후원회 선생님께
가방도 사 주시고 옷도 사 주시고 학용품도 많이 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잘 하도록 노력할게요.
할머니 말씀도 잘 듣고 잘 놀게요.

원주초등학교 한라반 3학년 노**



제게 도움을 주시는 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주천 중학교 1학년2반 안** 라고 해요. 한 달에 5만원씩 저를 후원해 주신다고 들어요. 이렇게 저를 후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비록 이름도 나이도 얼굴도 모르지만 저를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나중에 커서 훌륭한 인물이 된다면 저를 도와주신 점 잊지 않고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글 재주가 없어 이렇게 밖에 쓰자 못해서 죄송해요.

개인적으로 제 좌우명이 '후회하지 말자' 입니다. 제가 꼭!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의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짧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11년 12월16일 금요일 ** 올림



버지니아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고**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2011년에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원주는 요즘 며칠째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저는 방학을 맞이해서 멀리 계신 고모댁에 다녀왔습니다. 고모댁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모와 사촌 동생들과 함께 '옥종 테마파크'라는 곳에도 가 보고 가까운 '지리산'에도 다녀왔습니다.

옥종 테마파크도 좋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는 지리산이었습니다. 산을 그다지 자주 찾는 편이 아니라 산이 좋다는 걸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가 보니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느 곳 보다 공기가 상쾌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지리산을 다녀온 이후 앞으로 종종 등산도 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리산 뿐만 아니라 이곳 저곳 가 보고 경험해 보니 이번 방학은 참 알차게 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달 정도의 후덥지근한 여름이 남아있지만 더운 날씨를 이겨내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계획할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시는 도움,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삶의 작은 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시고 몸 건강히 지내시길 진심을 다해 소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 올림



버지니아 후원회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고**입니다.
2011년에도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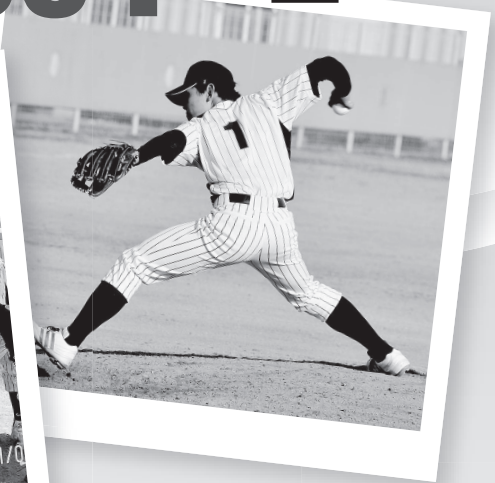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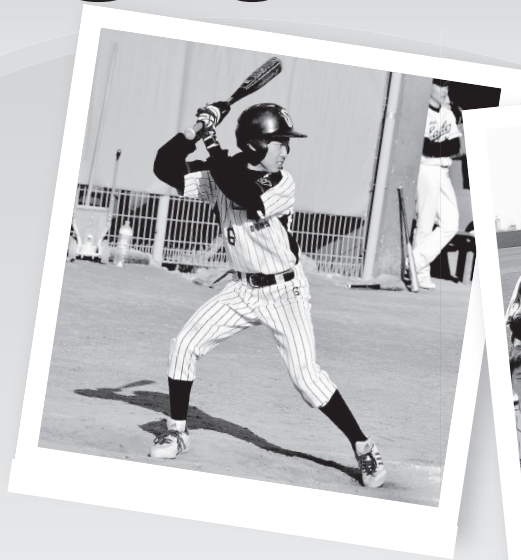
저는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고 있고 공부는 썩 잘 하진 않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요리사입니다.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데 엄마는 요리사 보다는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저는 여름방학 동안에 학교에서 하고 있는 과학 캠프에서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또 근래에 휴닉스파크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우리 마을에 있는 개울에 가서 수영도 하고 학교 멘토 선생님, 친구들과 맛있는 고기와 김치 볶음밥도 맛있게 먹고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기대하시는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항상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 올림

충주성심 야구부 후원 1004모집



농아인 야구부 학생들의 천사가 되어주세요

충주성심학교 야구부 학생들은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희망찬 미래를 향한 열정으로 오늘도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부 활동을 하고 있는 청각장애 학생들 대부분이 농아인 부모, 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장비, 훈련비용, 양말 한 켤레까지 모두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청소년들이 야구부 활동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세요. 매월 일정금액을 후원해 주시는 모든 천사분들을 위해 미사봉헌을 하고 야구부 소식지 및 교지를 보내드리며, 세금 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1004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학교 홈페이지: www.sungsim.sc.kr
- 문의: 571-432-9868
- 수표는 Caritas Wonju,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로 보내주세요

천사성함		연락처	
E-mail		기도신청	
주소			
후원금액	매월 ☐ \$10 ☐ \$20 ☐ 기타 ()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



나눔은 희망입니다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골라보세요! 천 원이에요. 새 옷입니다. 새 옷이 하나에 천 원!!” 복지사들은 연신 큰 소리로 외치며 사람들을 불러모읍니다.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마당에서 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의류바자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의류들은 고마운 후원자가 좋은 곳에 쓰라고 선뜻 보내준 것들입니다. 이른 아침 물건들을 미처 진열하기도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어 한바탕 정신을 쏙 빼놓았습니다. 서로 좋은 물건을 먼저 고르기 위하여 일찍부터 서둘러 나온 것이겠지요. 덕분에 복지관 직원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물건을 포장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종류는 많지 않지만 어린이가 가방부터 소품들, 겨울 잠바, 청바지 등 제법 여러 종류의 옷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옷들을 보내준 후원자가 누구인지 정말 고마운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때에 선뜻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떼어 준다는 것은 보통의 마음으로는 하기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나눔이란 가진 것이 많다고 누구나 하

는 것이 아니며,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하지 못할 것도 아니기에 크거나 작거나 그 어떤 것이라도 나눔은 소중하며 귀중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작지만 큰 뜻이 담긴 바자 장터를 바라보며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커피 한 잔에 500원을 받지만 그냥 주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싫어한다는 동전 500원짜리! 비록 작은 것이지만 세상을 살리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기에 쉽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혼자 먹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어 좋고, 부담 없어 좋고 ... 커피 한 잔의 대접으로 나눔에 인색해지려는 우리들 마음이 부끄러워집니다.

작은 바자회에서 얻은 기금은 오로지 독거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겨울이 되면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적은 생계비 가운데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 추위를 견디며 전기 매트 하나로 겨울을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전기 매트 하나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미래는 곧 우리 모두가 가야 할 미래이기에 조금 더 행복하게 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찾아 나선 여행

원주 청소년의집

‘원주 청소년의 집’은 중 고등학교 여학생 6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모두 여름방학을 하여 그야말로 놀고먹기 좋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시설에 맡겨져 성장하는 아이들은 나름 상처가 있고, 올바르게 지도를 해도 자기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방학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의 소개로 연세대에서 ‘시간관리’에 대하여 강의 하시는 분과 연결이 되어 지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첫걸음으로 하루 일과를 적는 것으로 ‘시간관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잘 관리해도 많은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정말 꾸준히 가르쳐 준 대로만 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은 이것도 무슨 숙제인 양 성을 내고 그것도 무료로 지도해 주시겠다는 선생님 앞에서 민망하게도 싫다고 고개를 저어 정말 난감하였습니다.

아직 본인들한테 얼마만큼의 이득이 되는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무조건 싫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여행이라도 준비하려면 말만 꺼내도 엄청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참에 우리는 올 초에 세웠던 계획을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거제도를 거쳐 통영으로 한 바퀴 돌았었는데 올해는 전라도 해남 땅끝마을과 보길도를 돌아보기로 하고 김밥과 먹을거리를 준비하여 각자 집 보파리를 써서 우리는 21일 새벽 집을 떠나 그야말로 장도(壯途)에 올랐습니다. 한밤중에 출발하는데 무엇이 그리도 좋은지 모두들 신나서 잠도 안 자고 음악을 틀고 조잘거리며 여섯 시간을 달려 우리는 마침내 첫 번째 관광지인 고산 윤선도 유적지에 도착하여 돛자리를 깔고



아침을 먹고 관광안내도에 따라 여러 곳을 피곤한 줄도 모르고 2박3일의 여정을 나름대로 화려하게 보냈지요. 민박집에서 밥도 지어먹고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도 즐기고 모노레일카를 타고 땅끝전망대로 올라보고 배를 타고 보길도에 들어가 한 바퀴 돌아보며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2박3일 동안 아이들에게 바깥 세상을 보여주고 일상으로 돌아옴으로써 아이들이 열심히 살아보자는 새로운 각오와 삶의 의욕이 한층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록 부모들과 헤어져 가슴 한구석이 늘 허전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아이들의 미래는 활짝 핀 꽃과도 같이 아름다운 길이 되리라는 것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따라가지는 못하였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은 대학생 언니들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만은 간절합니다. 언니들이 롤모델이지요. 다들 대학에 가고싶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김영희 율리안나

후원회비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6월 ~ 2011년 12월까지)

일반/업소/단체/기관	
강금생	~2011년 12월
강대성 / 마리아	~2011년 12월
강명희 (에밀리아)	~2011년 12월
강윤선 루시아	~2011년 12월
곽중무	~2011년 12월
광숙조	~2011년 12월
구귀옥 (아나타시아)	~2011년 12월
구춘희	~2011년 12월
권순 (리오바)	~2011년 12월
금화열 / 로사	~2011년 8월
김경진	~2011년 12월
김경호 / 김영혜	~2011년 12월
김남례 (모니카)	~2011년 12월
김남식 (안드레아)	~2011년 12월
김남식 / 율리아나	~2011년 12월
김동한	~2011년 12월
김두하 / 연희	~2011년 12월
김명희 (율리아나)	~2011년 12월
김문철 / 카타리나	~2011년 12월
김박철 / 안젤라	~2011년 12월
김성현	~2011년 12월
김성화	~2011년 12월
김승현 / 현동	~2011년 12월
김영연	~2011년 12월
김영애	~2011년 12월
김영희 아네스	~2011년 12월
김원정	~2011년 12월
김윤상	~2011년 12월
김은자 루시아	~2011년 12월
김인순	~2011년 12월
김재인 (안나)	~2011년 12월
김정자 Spencer	~2011년 12월
김정희 (안젤라)	~2011년 12월
김정희 / 준수	~2011년 12월
김종빈	~2011년 6월
김홍자 (아네스)	~2011년 12월
김화동	~2011년 12월
민금선 마리아	~2011년 12월
민들레회	~2011년 12월
민일성 / 멜라니아	~2011년 12월
박민규	~2011년 12월
박연실 Silliana	~2011년 12월
박영수/Tri State Contractors	~2011년 6월
박종J	~2011년 12월
박찬호	~2011년 12월
서봉임	~2011년 12월
서영숙	~2011년 12월

서정길	~2011년 12월
소근화 (도미나)	~2011년 12월
소병각	~2011년 12월
손양조	~2011년 12월
송상훈 / 마리아	~2011년 12월
안나희	~2011년 12월
안병화	~2011년 12월
안성환	~2011년 3월
안진군	~2011년 9월
어도로테아	~2011년 12월
어인경	~2011년 12월
염윤기	~2011년 12월
오성웅	~2011년 12월
원승철	~2011년 12월
유정식	~2011년 12월
윤민숙 데보라	~2011년 12월
은임순	~2011년 12월
이갑현	~2011년 12월
이강영 (데오도로)	~2011년 12월
이경숙 마리아	~2011년 11월
이기녕	~2011년 12월
이만수	~2011년 4월
이순남	~2011년 12월
이순용 (안젤라)	~2011년 12월
이순주	~2011년 12월
이승구 / 분다	~2011년 12월
이신규	~2011년 12월
이말비나	~2011년 12월
이예자	~2011년 12월
이우진 / 김숙희 / 이명	~2011년 12월
이은배	~2011년 12월
이정일	~2011년 12월
이천우 / 헬레나	~2011년 12월
이태선	~2011년 12월
이태욱 / 리타	~2011년 12월
임계민 / 데레사	~2011년 10월
장경옥 / 윤성	~2011년 12월
전수일 / 글라라	~2011년 12월
전태진 / 전기복	~2011년 12월
정창조 / 루시아	~2011년 12월
정영수	~2011년 12월
정해C	~2011년 12월
조남식	~2011년 12월
조명규	~2011년 12월
조봉순 (아가다)	~2011년 12월
주삼성 / 레지나	~2011년 12월
최마리아	~2011년 8월
최순희	~2011년 12월

최재필	~2011년 4월
최종걸	~2011년 3월
하명희 (말가리따)	~2011년 12월
하상희	~2011년 12월
한로빈	~2011년 7월
한마리아	~2011년 12월
한정현	~2011년 12월
한중희 / 영희	~2011년 12월
허영숙	~2011년 12월
홍성철 / 세실리아	~2011년 12월
홍알벗	~2011년 12월
황정자 (데레사)	~2011년 12월
Garvey, Cheryl K	~2011년 5월
Lotte Cosmetics	~2011년 12월
Pierce, Young-Mi	~2011년 12월

아동결연 / 시설후원	
대건의 집	
박영희 데레사	~2011년 12월
루치아 쉼터	
박찬영	~2011년 12월
송승혜	~2011년 4월
오승은	~2011년 12월
이데레사	~2011년 12월
이명구 수산나	~2011년 12월
이윤아 켄마	~2011년 12월
최윤옥	~2011년 12월
Pak, Sue	~2011년 12월
목포 작은 꽃들의 집	
김도현 (2 아동 결연)	~2011년 12월
김영식 / 김소영	특별후원
바오로회	~2011년 12월
베론성지	
서봉임	~2011년 12월
북평성당	
김병윤	~2011년 12월
북한탈북자지원	
Yuh, Teresa	특별후원
삼척 종합사회복지관	
성승옥	~2011년 12월
이명자	~2011년 12월
이연철 / 박희임	~2011년 12월
편성대	~2011년 12월
한귀병 (토마스)	~2011년 11월
익명 H	~2011년 12월
서울장학결연	
최병렬 / 최경희	~2011년 12월

영월 다문화지원센터	
김병윤	~2011년 12월
유자경	~2011년 12월
원주 종합사회복지관	
강명희 (에밀리아)	~2011년 12월
김병윤	~2011년 12월
김용상	~2011년 10월
김지은	~2011년 8월
매죽회 (2명 아동후원)	~2011년 12월
바오로회	~2011년 12월
박영수 (2명 아동후원)	~2011년 6월
서운배 / 데레사	~2011년 12월
윤경자	~2011년 12월
이연철 / 박희임	~2011년 12월
장경옥 / 윤성	~2011년 12월
정우석	~2011년 6월
정일희	~2012년 6월
차명자	~2011년 12월
한중희 / 영희	~2011년 12월
원주 비안네성소	
구귀옥	~2011년 12월
금화열	~2011년 8월
김남례 모니카	~2011년 12월
김두하	~2011년 12월
정선 프란치스코의 집	
김두하 / 연희	~2011년 12월
김미경	~2011년 12월
김선민 Andrew	~2011년 12월
김효중 아네스	~2011년 12월
박용걸 / 완다	~2011년 12월
유정식 / 루시아	~2011년 12월
한중희 / 안젤라	~2011년 12월
Beecher, Wolkyun	특별후원
제천 노인복지관	
익명 C	~2011년 12월
천사들의 집	
권전옥 / 박숙희	~2011년 12월
장남숙 / 오연옥	~2011년 12월
박인옥 / 도원	~2011년 12월
임영재	~2011년 12월
횡성 종합사회복지관	
강스텔라	~2011년 6월
김미정	~2012년 3월
김영식 / 김소영	~2011년 12월
노명아	~2011년 12월
익명 P-2	~2011년 12월
유지광/유보나 (2명 아동후원)	~2011년 7월
이용선 (4명 아동후원)	~2011년 12월

이지연 마리아	~2011년 12월
정규임	~2011년 12월
최일지	~2011년 2월
흑빛공부방	
김순섭	~2011년 12월
늘푸른여성골프회	~2011년 12월
박완다	~2011년 12월
이진희	~2011년 12월
차창욱	~2011년 12월
최평란	~2011년 12월
네팔	
김명철 / 소하	~2011년 12월
김정희 안젤라	~2011년 12월
김헬리시아	~2011년 12월
변애린	~2011년 12월
안크리스토퍼	~2011년 12월
이은배	~2011년 12월
정규임	~2011년 12월
허영숙 (2 아동후원)	~2011년 12월
에콰도르	
백승태 / 마리아	특별후원
유보나 / 유지광	~2011년 12월

성심원	
김세실리아팀	특별후원
사랑의 선교 수사회	
김세실리아팀	특별후원
파푸아 뉴기니	
김세실리아팀	특별후원
변레지나	~2011년 12월
안순상팀	특별후원
필리핀 빠야따스	
김연훈 베로니카	특별후원
소난희	특별후원
이기녕	특별후원
이주원 / 이은영	특별후원
장윤은	특별후원
Kim, Jason L	특별후원
재정기금	
김명철	~2011년 12월
윤경자	~2011년 12월
차명자	~2011년 12월
홍세실리아	~2011년 12월
Hi-Tech Bankcard	~2011년 12월

사랑의 모금통

BP Short Food / 박진욱	2011년 5월
Beulah Cleaners / 김일근	2011년 8월
Brafferton Cleaners / 이갑용	2011년 1월, 9월
Capitol Cafe / 서 제임스	2011년 2월
Chesterbrook Excel / 김영술	2011년 8월
Express Seven Food /	2011년 5월, 8월, 11월
Fair Oaks Cafe	2011년 2월
John’ s Cafe / 김재영	2011년 1월, 2월, 9월
Jon’ s Cafe / 최용태	2011년 8월
Liberty Cafe / 박루시아	2011년 5월, 10월
Manchester Bagel/오성웅	2011년 1월
Maynine Inc / 용복순	2011년7월, 8월, 9월, 10월, 11월
Monument Cafe / 최지돈	2011년 2월
NADA Cafe / Choi, Sandy	2011년 2월
Paddock Cleaners / 한귀병	2011년 2월, 10월
Spices & Beyond / 윤태혁	2011년 11월
Sun Dry Cleaners/권순 리오바	2011년 1월, 9월
Tyson’ s Super Cleaners/정대니얼	2011년 2월
Uptown Market / 김소피아	2011년 12월
헤어스케치 / 이정연	2011년 2월, 6월, 10월, 12월

* 후원금 내역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되신 분, 주소가 변경된 회원님들은 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571)432-9868

해마다 이맘때쯤
당신께 바치는 나의 기도가
그리 놀랍고 새로운 것이 아님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의 얼음도 풀리는 봄의 강변에서
당신께 드리는 나의 편지가
또다시 부끄러운 죄의 고백서임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살아 있는 거울 앞에 서듯
당신 앞에 서면
얼룩진 얼굴의 내가 보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나의 말도
어느새 낡은 구두 뒷축처럼 닳고 닳아
자꾸 되풀이할 염지도 없지만
아직도 이 말 없이는
당신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또다시 당신 앞에

용서하소서 이 죄인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고
다급할 때만 당신을 불렀음을
여전히 게으르고 냉담했고
기분에 따라 행동했음을
여전히 나에겐 관대했고
이웃에게 인색했음을
여전히 불평과 편견이 심했고
쉽게 남을 속단하고 미워했음을
여전히 참을성없이 행동했고
절제없이 살았음을
여전히 말만 앞세운 이상론자였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은총의 때가 되게 하소서

재의 수요일 아침
사제가 없어 주신 이마 위의 재처럼
잘디잔 일상의 회색빛 근심들을
이고 사는 나

참사랑에 눈뜨는 법을
죽어서야 사는 법을
십자가 앞에 배우며
진리를 새롭히게 하소서

맑은 성수를 찍어
십지를 긋는 내 가슴에
은빛 물고기처럼 튀어 오르는
이 싱싱한 기도

“주여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내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 하소서”

우리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해 드립니다

(2011년 7월1일 ~ 2011년 12월 31일)

정김경진 / 김송자 (일반), Hae C Chung (일반), 권전옥 (천사들의집), 박숙희 (천사들의집), 정남숙 (천사들의집), 오연옥 (천사들의집), Spices & Beyond (모금통), Café at Fair Lakes (모금통)

2011년 6월 ~ 2011년 12월분 후원금 내역: 총 \$66,637

	2011년 6월	2011년 7월	2011년 8월	2011년 9월	2011년 10월	2011년 11월	2011년 12월	합계
총 후원금	7,753	6,147	3,174	9,979	8,096	6,248	25,240	\$66,637
원주후원회	938	1,297	294	1,074	3,366	1,153	1,655	\$9,777
성동장애인복지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700
대건의 집		120		120		120		\$360
루치아센터	270		120	150	60	120	120	\$840
북평성당	60	60	60		120	60		\$360
북한돕기							500	\$500
삼척종합사회복지관	415	250	340	245	590	245	285	\$2,370
서울장학결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700
영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0	180	60	120	120	180		\$720
원주복지관	850	1,090	230	320	1,780	180	1,580	\$6,030
원주비안네성소후원		40			40	30		\$110
정선프란치스코의 집	250	130	50	250	70	110	50	\$910
제천시 노인복지관		120		120	60		60	\$360
천사들의 집	180	240	240	300	660		120	\$1,740
횡성종합사회복지관	570	690	210	1,050	210	210	750	\$3,690
흑빛공부방	620	560	680	560	680	560	680	\$4,340
목포 작은 꽃들의 집	120		240			240	900	\$1,500
충주성심야구부		500			40		300	\$840
산타행사						2,120	17,940	\$20,060
해외후원금								
네팔	200		200					\$400
사랑의선교수사회		90						\$90
성심원		90						\$90
인도네시아	2,000							
에쿠아도르		200	100		100	100	100	\$600
파푸아 뉴기니	1,020	90	150	5,470		420		\$7,150
필리핀 빠야다스		200				200		\$400

봄과 같은 사람

- 이해인

봄과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본다.

그는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명량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교만위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것이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 해야 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히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사랑을 함께 나눌 회원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정기회원 매달 12불이상이면 되실 수 있습니다. 그중 20%는 지구촌 긴급구호금으로 축적됩니다.

특별후원 후원금액에 상관없이 원하시는 금액을 언제든지 후원하시면 됩니다.

고국 아동결연 매달 60불씩 후원을 하시게 됩니다. 50불은 결연아동에게 직접 전달되며 10불은 결연아동 관할 복지관 복지 서비스를 후원합니다.

**해외아동복지
급식지원** 1년에 \$200로 네팔/파푸아뉴기니 아동복지및 급식지원을 하게 됩니다.

회비납부 방법:

1. 매 주 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 친교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2.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수표는 Caritas Wonju 로 써 주시면 됩니다.
3. 회비는 매달 혹은 3개월, 6개월, 1년치 회비를 한번에 내셔도 됩니다.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연락처 : 571-432-9868/703-968-3010
이메일 : caritasva@gmail.com

재단 이사장: 곽호인 베드로 신부

후원회장: 유홍열

고문 변호사: 이인탁

고문 공인회계사: 노상문

재정이사: 강민식, 김글라시아, 김명철

조영혜, 차명자

김리나, 윤경자, 홍세실리아

김돈현

운영이사: 유자경, 차명자, 고재오

윤경자, 김글라시아, 노상문

한린다, 이 데레사

포스터 디자인: 백경화

홈페이지 관리: 하보이

사진촬영: 지수성

웹사이트: www.caritaswonjuva.com

본 회지는 매 6개월에 한번씩 발행됩니다.

발간인 : 곽호인 베드로 신부

편집인 : 유자경, 이소영, 홍알벗, 신선애

원고 교정 : 정영희

편집 Layout : 백경화

신규회원 가입신청서

구 분	정기회원(), 특별후원()				
신 청 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회비/월	\$12() \$20() \$30() \$40() \$50() 기타() 특별후원() *20%는 지구촌 긴급구호금으로 축적됩니다.				

고국아동/공부방 결연 후원 신청서

신 청 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회비	결연 \$60/월 ()			후원아동/ 공부방이름	

네팔/파푸아뉴기니 아동복지/급식지원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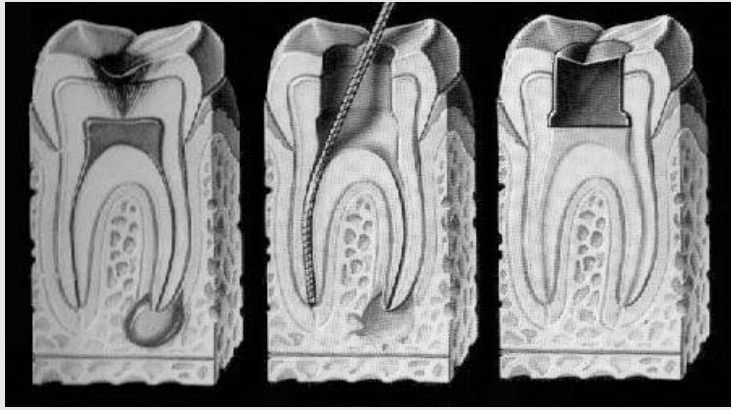
신 청 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회비	1년에 \$200				

ENDODONTICS-ROOT CANAL SPECIALIST

신경치료 전문의

Charlie H. Hong, DMD

Practice Limited To Endodontics



703-359-4447

3554 Chain Bridge Rd., #401
Fairfax, VA 22030

차명자 치과

Myong J. Cha, D.D.S.



모든 일반치과 진료

Office hours by Appointment

3915 Old Lee Highway Suite 22-D
Fairfax, VA 22030

(703) 273-5033

윤경자 치과



건강한 치아
아름다운 미소를 찾아드립니다

703-538-2283

6081 Arlington Blvd., Falls Church, VA 22044



웨어팩스 가정의학



어린이에서부터 노인분에 이르기까지
환자 한분 한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의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Michael D. Kim, MD

김돈현 가정의학 전문의

William & Mary 대학졸업
Medical College of Virginia 의과대학 졸업
미국 가정의학 전문의 (Diplomate, American Board of Family Practice)
전 Harrisburg Hospital Family Practice Residency Program의 Clinical Faculty역임
현재 INOVA Fairfax & Fair Oaks Hospital Staff Physician
현재 AMA, AAFP 멤버

진료과목

내과

소아과

부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피부과

학교신체검사

예방접종

종합검진

보험 : 메디케어 및 각종 보험 취급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Tel. (703)591-4100 / Fax.(703)591-5380
10801 Main St., Suite 700, Fairfax, VA 22030 (새주소)



치 주 치 과 전 문 의

Perio Implant Center 강원근
인공치아 / 잇몸수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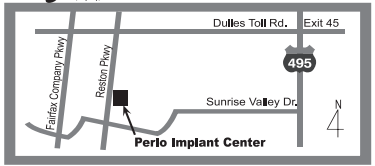
Q 치주(잇몸)질환과 치아이식이란
일반치과 의사들이 강원근 치주치과 전문의에게 리퍼(소개)하는 이유는?

A “각종 잇몸질환과 치아이식을 가장 성심껏
전문의의 기술로 치료해 드립니다.”

학력
Turfs 시대 졸업
Univ. of MD 치주전문 의 졸업
U.S. NAVY 치주 전문의 연수
Board Eligible for Academy of Periodontology
미 치주학회 정회원
Implant 학회 정회원

진료과목
치주 진료
인공 치아 이식(Implant) 상담 치료
풍치 수술, 잇몸 성형수술

Refer
(리퍼) 일반의사들이 환자의 증상에 대하여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할 때 해당 환자를 전문의에게 소개하는 의료단체



703.648.0500
11866 Sunrise Valley Dr., #101, Reston, VA 20191

www.perioimplantcenter.com

Kim's
AUTO SERVICE



**김씨자동차
정비센터**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정성껏 정비해 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 신용 친절

외제차 & 국내차 대표: 김남식
Fair City Mall 근처 U.S 우체국 바로옆의 골건물
3707 Pickett Rd., Fairfax, VA 22031 **(703)425-4600**



Fairfax
MEMORIAL

“Service Above All”
Full Service Funeral Home and Crematory

Serving All Cemeteries • Prearrangements Available
Family Owned and Operated



Fairfax Memorial Funeral Home
9902 Braddock Road • Fairfax, VA 22032
703-425-9702
Peter L. Piscitelli, General Manager

Fairfax Memorial Park
formerly Calvary Cemetery
9900 Braddock Road • Fairfax, VA 22032
703-323-5202

Family Owned and Operated Since 1957


WASHINGTON
GRAPHICS

실사출력 전문업체 - 워싱턴그래픽

차량랩핑, 베너, 현수막, 레스토랑,
텔리 등의 메뉴보드, 벽화

그외 모든 디스플레이 그래픽 전문

703.750.2884

‘WBS워싱턴TV 방송’ 에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11시까지 방영되고 있는 하상문화방송은

Cox 채널 30과 버라이즌 채널 30에서 동시방영됩니다.

하상문화방송 프로그램은 서울평화방송의 시사, 교양, 강의, 묵상, 건강 외
성 정 바오로천주교회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며 기쁜소식, 밝은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소개



활력충전! 오늘도 건강하게



추기경 김수환이야기



홍세실리아 강사와 함께하는
라인댄스 초급강좌

- 곽호인 신부와 함께하는 밤의 명상 (5분 명상)
- 우리수녀님께 물어보세요 (가톨릭에 대해 궁금한점을 수녀님께 물어보세요- 이메일: askoursister@gmail.com)
- 황창연 신부의 행복과 유혹 (4월 5일 목요일 제 1회시작)
- 성이냐시오의 영신수련 - 깊은데에 그물을 쳐라 (예수회 유시찬 보나벤투라신부)
- 전광진신부의 교회이야기

하상문화방송 편성표는 매주 수요일 중앙일보 종교면에 게재됩니다.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 웹사이트(www.stpaulchung.org)에서 방송안내, 밤의 명상, 우리 수녀님께 물어보세요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WBS-TV 편성표

수	목	일
오후 9:00 ~ 11:00	오후 9:00 ~ 11:00	오전 7:00 ~ 9:00
9:00 생명의 말씀	9:00 휴먼 다큐	7:00 행복으로의 초대
9:30 문화 콘서트	9:50 WBS 초대석	7:30 생명의 말씀
10:00 필그림 아워	10:00 오늘의 양식	8:15 형제의 소리
10:30 새롭게 하소서	10:30 통일방송	8:50 찬양과 경배

*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상문화방송 후원문의: 703-968-3010, 703-675-9681